

통계 87-04

經濟學入門

통계청 도서실



B0024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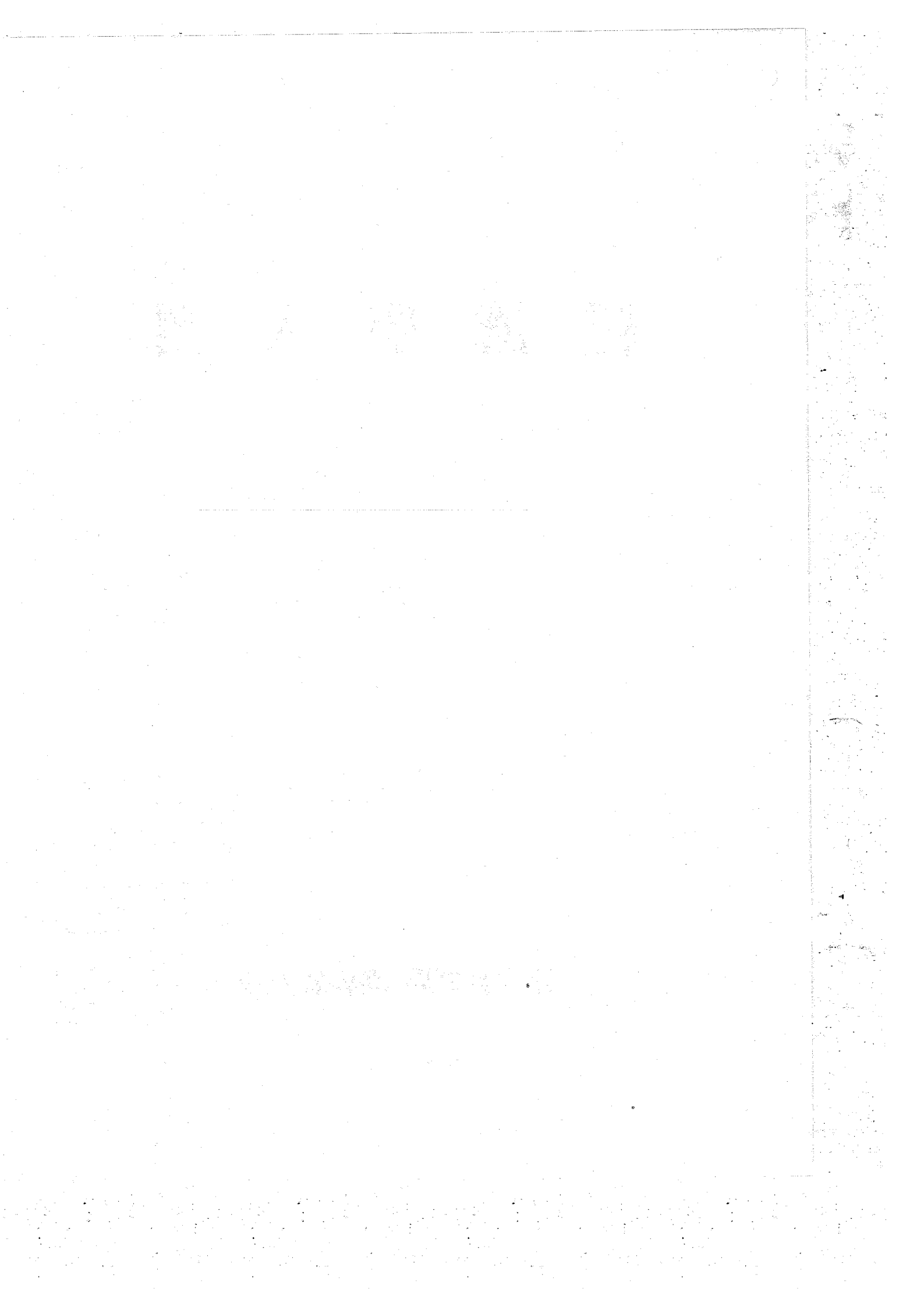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1
2
3

통계 87-04

經濟學入門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目 次

1. 開放經濟에서의 一般均衡	3
2. 3低는 가고 3高오는가	39
3. 韓國의 資金決定과 이와 關聯된 問題들	59
4. 民主化時代의 經濟運用	91
5. 體制에 대한 自身感을	99
6. 最低資金制의 宿題	105

開放經濟에서의 一般均衡

THE UNIVERSITY OF CHICAGO

I. 序 論

巨視經濟學을 공부하는 目的은 基本理論을 理解하고 이를 巨視經濟政策의 效果分析에 適用하려는 데 있다. 여기에서 基本理論이란 一般均衡理論을 意味한다.

이 글은 經濟學 基礎知識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開放經濟에서의 一般均衡體系를 理解하고 이를 여러가지 巨視經濟政策의 效果分析에 適用할 수 있도록 巨視經濟學의 基本理論을 提示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 글에서는 論理의 單純化를 위해서 작은 規模의 開放經濟와 變動換率 制度의 採擇을 基本假定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巨視經濟學이 다뤄야 할 여러가지 特殊問題는 除外되고 있다. 分析方法은 短期의 比較正態 均衡理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本 序論에 이어 II 節에서는 巨視經濟學의 一般均衡을 數式과 그림을 使用하여 說明하고 III 節에서는 政策效果의 分析과 關聯해서 技術發展을 다루고 있으며 IV 節에서는 이 글의 結論을 提示하고 있다.

II. 開放經濟에서의 一般均衡

巨視經濟學의 一般均衡模型은 數式이나 그림을 使用하여 說明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數式을 使用하여 基本模型을 說明하고 이어서 그림을 使用하여 이를 具體적으로 說明하기로 한다.

1. 基本模型 : 數式

表 1 은 開放經濟에서의 一般均衡 體系를 나타내고 있다. 數式에서 小文字는 實質值, 大文字는 一般的으로 名目值와 關聯되고 있으며 均衡條件式의 左便은, 生産函數를 除外하고는, 모두 供給을 意味하며 右便은 需要를 意味한다. 數式에 包含되어 있는 各 函數는 均衡條件式의 밑에 別途로 나타나 있다. 各 變數의 名稱은 表의 오른쪽에 表記되어 있다.

開放經濟에서의 一般均衡은 需要側面의 商品市場, 貨幣市場, 證券市場, 外換市場과 供給側面의 勞動市場等 모두 다섯개 市場의 同時均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Walras 法則에 따라 이들 다섯개 市場 가운데 네개 市場만 均衡을 이루어도 一般均衡은 成立될 수 있다. 따라서 證券市場은 數式에서 除外된다.

一般均衡은 크게는 需要側面과 供給側面의 同時均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需要側面에서는, 商品市場의 均衡에서 所得(y)이, 貨幣市場의 均衡에서 利子率(r)이, 外換市場의 均衡에서 換率(e)이 決定되는데 이들의 同時均衡을 바탕으로 한 經濟의 總需要가 決定된다. 供給側面에서는, 勞動市場의 均衡에서 決定되는 雇傭(N)과 短期生産函數를 바탕으로 한 經濟의 總供給이 決定된다. 故으로 總需要와 總供給은 한 經濟의 物價水準(P)을 決定한다.

商品市場 均衡: $y = c(y - t(y)) + i(r) + g + \chi(P, e) - m(y, P, e)$

$c = c(y - t(y)), \frac{dc}{d(y - t(y))} > 0$

$i = i(r), \frac{di}{dr} < 0$

$g = \bar{g}$

$\chi = \chi(P, e), \frac{\partial \chi}{\partial P} < 0, \frac{\partial \chi}{\partial e} > 0$

$m = m(y, P, e), \frac{\partial m}{\partial y} > 0, \frac{\partial m}{\partial P} > 0, \frac{\partial m}{\partial e} < 0$

貨幣市場 均衡: $\frac{M}{P} = l_1(y) + l_2(r)$

$M = \bar{M}$

$l_1 = l_1(y), \frac{dl_1}{dy} > 0$

$l_2 = l_2(r), \frac{dl_2}{dr} < 0$

外換市場 均衡: $P\chi(P, e) + Fn(r) = eP_f m(y, P, e) + F_f(r)$

$X = P\chi(P, e), \frac{\partial X}{\partial P} < 0, \frac{\partial X}{\partial e} > 0$

$F_n = Fn(r), \frac{dFn}{dr} > 0$

$M = eP_f m(y, P, e), \frac{\partial M}{\partial y} > 0, \frac{\partial M}{\partial P} < 0, \frac{\partial M}{\partial e} < 0$

$P_f = \bar{P}_f$

$F_f = Ft(r), \frac{dF_f}{dr} < 0$

生產函數: $y = f(N, K), \frac{dy}{dN} > 0$

$K = \bar{K}$

勞動市場 均衡: $P^* g(N) = P f'(N), f' = \frac{dy}{dN}$

$P^* g(N) = W, \frac{d(P^* g(N))}{dW} > 0$

$P f'(N) = W, \frac{d(P f'(N))}{dW} < 0$

$P^* = p(P), 0 \leq p' \leq 1$

y : 實質國民所得

i : 投資

c : 消費

e : 換率 (= 外國貨幣 / 自國貨幣)

r : 利率

x : 輸出

m : 輸入

t : 稅

g : 政府支出

P : 國內物價

M : 名目通貨量

l₁ : 去來的動期

l₂ : 投機的動期

F_n : 資本誘入

P_f : 海外物價

X : 資本誘出

M : 名目輸入

f : 生產函數

N :

P* : 豫測物價

g(N) : 實價賃金

f' : 勞動的限界生產性

W : 名目賃金

表에 나타난 一般均衡 體系는 證券市場을 除外하고 商品市場, 貨幣市場, 外換市場, 勞動市場等 네개 市場으로 構成되어 있으나 未支收 (y, r, e, P, N) 는 다섯개가 되어 數學적으로 풀릴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다 生産函數를 追加하면, 다섯개 方程式에 다섯개 未支收의 體系가 成立되어 問題가 解決된다.

2. 基本模型 : 그림

여기에서는 그림을 使用하여 一般均衡體系를 具體적으로 說明하기로 한다.

가. 需要側面의 均衡

開放經濟에서 需要側面의 均衡은 商品市場, 貨幣市場 그리고 外換市場의 同時均衡으로부터 誘導된다. 다음에서는 各 市場의 均衡을 차례로 說明하기로 한다.

1) 商品市場의 均衡

商品市場의 均衡은 商品의 供給과 商品에 대한 需要가 같을 때 이루어지고 이 結果로 所得 (y)이 決定된다.

商品市場의 均衡을 나타내는 式은,

$$y = c(y - t(y)) + i(r) + g + \lambda(P, e) - m(y, P, e)$$

商品의 供給은 企業家에 의해서 決定되는데 이를 y 로 나타내기로 하자. 企業가는 商品의 供給을 위해서 生産要素를 購入하고 그 대가로 要素費用을 支拂한다. 그런데 要素費用은 生産要素 供給者에게는 要素所得이 된다. 따라서 商品의 供給 y 는 所得의 處分形態로 表現할 수 있다. 所得은 一般的으로 消費(c), 貯蓄(s), 그리고 租稅(t)로 處分된다. 商品의 供給을

所得의 處分으로 나타내면,

$$y \equiv c(y-t(y)) + s(y-t(y)) + t(y), \frac{dc}{d(y-t(y))} > 0,$$

$$\frac{ds}{d(y-t(y))} > 0, \frac{dt}{dy} > 0$$

한편 商品에 대한 需要(y)는, 支出接近方法에 의한 GNP 計定에 따르면, 消費需要(c), 投資需要(i), 政府需要(g), 그리고 純海外需要($\chi - m$)로 構成된다. 商品에 대한 需要를 式으로 나타내면,

$$y = c(y-t(y)) + i(r) + g + \chi(P, e) - m(y, P, e), \frac{dc}{d(y-t(y))} > 0,$$

$$\frac{di}{dr} < 0, g = \bar{g}, \frac{\partial \chi}{\partial P} < 0, \frac{\partial \chi}{\partial e} > 0^{1)}, \frac{\partial m}{\partial y} > 0, \frac{\partial m}{\partial P} > 0, \frac{\partial m}{\partial e} < 0$$

위의 論議를 바탕으로 商品市場의 均衡條件을 간단히 쓰면,

$$c + s + t \equiv y \equiv c + i + g + (\chi - m)$$

이 式을 整理해서 다시 쓰면,

$$c + s + t + m = c + i + g + \chi$$

또는

$$s + t + m = i + g + \chi$$

따라서 商品市場의 均衡條件은,

註 1) 여기에서 換率은 外國貨幣價値에 대한 自國貨幣價値의 比率로 表現되어 있으므로 換率의 引上은 自國貨幣의 評價節下를 意味하고 換率의 引下는 自國貨幣의 評價節上을 意味한다.

$$s(y - t(y)) + t(y) + m(y, P, e) = i(r) + g + x(P, e)$$

이제 商品市場의 均衡은 그림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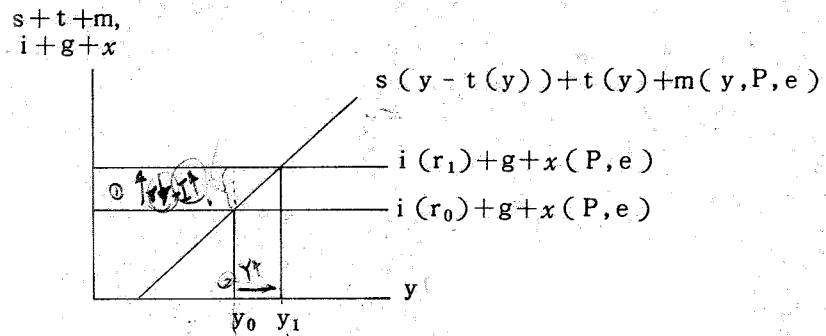


그림 1 - 1. 商品市場의 均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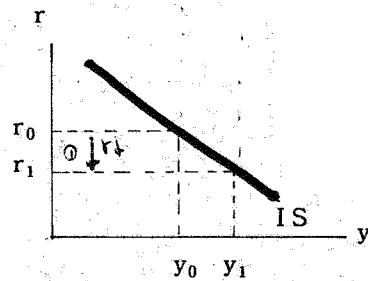


그림 1.- 2. IS 曲線

그림 1. 商品市場의 均衡과 IS 曲線

그림 1 - 1에서, 貨幣市場에서 決定되는 利率이 r_0 로 주어져 있을 때 商品市場이 均衡을 이룬다면 所得은 y_0 가 된다. 이제 利率이 r_0 에서 r_1 으로 下落한다고 하자. 利率이 下落하면 投資가 增加하여 ($i + g + x$ 曲線의 上向移動) 所得은 y_0 에서 y_1 으로 增加한다. 따라서 (r_0, y_0) 와 (r_1, y_1) 을 나타내는 점을 連結하면 그림 1 - 2와 같은 右下向的인 IS 曲線이 誘導된다.

IS曲線이 右下向의인가는 數學的으로 證明될 수 있다. 商品市場의 均衡條件을 다시 쓰면,

$$y = c(y, t(y)) + i(r) + g + \chi(P, e) - m(y, P, e)$$

이 式을 全微分하면,

$$dy = c'(1-t')dy + i'dr + dg + \frac{\partial \chi}{\partial P} dP + \frac{\partial \chi}{\partial e} de - \frac{\partial m}{\partial y} dy - \frac{\partial m}{\partial P} dP - \frac{\partial m}{\partial e} de$$

만일 $dg = dP = de = 0$ 이라고 假定하면,

$$dy = c'(1-t')dy + i' \cdot dr - \frac{\partial m}{\partial y} dy$$

따라서

$$\frac{dr}{dy} = \frac{1 - c'(1-t') + \frac{\partial m}{\partial y}}{i'}$$

여기에서 $1 - c'(1-t') > 0$, $\frac{\partial m}{\partial y} > 0$, $i' < 0$ 이므로 $\frac{\partial r}{\partial y} < 0$ 이 되어 IS 曲線은 右下向의이다.

그런데 위 式의 分子에 包含되어 있는 $\frac{\partial m}{\partial y}$ 으로 인해 開放經濟의 IS 曲線의 기울기는 閉鎖經濟의 境遇에 비해 그 節對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國內物價 P 와 換率 e 가 各各 上昇하는 境遇를 살펴보자. 그림 1-1에서 P 가 上昇하면, $\frac{\partial \chi}{\partial P} < 0$ 이므로 $i + g + \chi$ 曲線은 下向移動하고, $\frac{\partial m}{\partial P} > 0$ 이므로 $s + t + m$ 曲線은 左側移動하여 주어진 利率에서 所得은 낮은 水準에서 決定된다. 이는 곧 IS 曲線의 左側移動으로 나타난다. e 가 上昇하면, $\frac{\partial \chi}{\partial e} > 0$, $\frac{\partial m}{\partial e} < 0$ 이므로 $i + g + \chi$ 曲線은 上向移動하고 $s + t + m$ 曲線은 右側移動하여 주어진 利率에서 所得은 높은 水準에서 決定된다. 이는 곧 IS 曲線의 右側移動으로 나타난다.

2) 貨幣市場의 均衡

貨幣市場의 均衡은 貨幣의 供給과 貨幣에 대한 需要가 같을 때 이루어지고 이 結果로 利率(r)이 決定된다.

貨幣市場의 均衡을 나타내는 式은,

$$\frac{M}{P} = \ell_t(y) + \ell_s(r)$$

貨幣의 供給($\frac{M}{P}$)은 中央銀行에 의해서 獨立的으로 決定된다고 假定하고 여기에서는 이를 實質殘庫로 나타내어 使用한다.

한편 貨幣에 대한 需要函數(ℓ)는,

$$\ell = \ell_t(y) + \ell_s(r), \quad \frac{d\ell_t}{dy} > 0, \quad \frac{d\ell_s}{dr} < 0$$

貨幣에 대한 需要는 케인즈理論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는 去來의 動期에 의한 貨幣需要(ℓ_t)와 投機的動期에 의한 貨幣需要(ℓ_s)로 構成된다. 그런데 케인즈理論에 따르면, 貨幣와 證券은 各各 資產의 한 形態로서 서로 代替될 수 있다고 假定된다. 따라서 만일 商品市場에서 所得이 增加하면, $\frac{d\ell_t}{dy} > 0$ 이므로 貨幣市場에서 超過需要가 나타나 사람들은 證券을 팔아 이에 代替하고자 할 것이므로 證券값은 下落하게 되고 이 結果로 利率은 上昇하게 된다.²⁾ 이는 貨幣에 대한 需要曲線의 右側移動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證券市場은 貨幣市場과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지만 Walras 法則에 따라 分析의 對象에서 除外되고 있을 뿐이다.

이제 貨幣市場의 均衡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註 2) 證券價格을 P_B , 額面價를 X , 利率을 r 이라고 하면, $P_B = \frac{X}{r}$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r 이 上昇하면 P_B 는 下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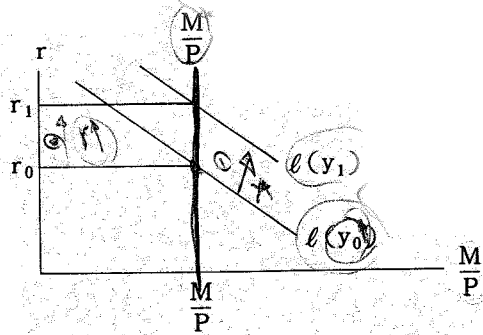


그림 2 - 1. 貨幣市場의 均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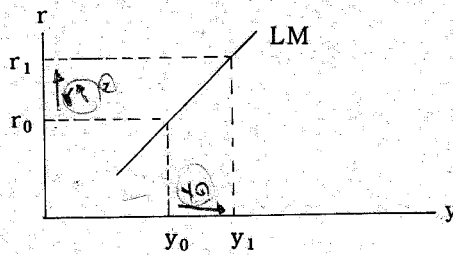


그림 2 - 2. LM曲線

그림 2. 貨幣市場의 均衡과 LM曲線

그림 2 - 1에서 商品市場에서 決定되는 所得이 y_0 로 주어져 있을 때 貨幣市場이 均衡을 이룬다면 利子率은 r_0 가 된다. 이제 所得이 y_0 에서 y_1 으로 增加한다고 하자. 所得이 增加하면 去來의 動期에 의한 貨幣需要가 增加하여 貨幣市場에서는 超過需要가 나타나게 된다. 이 境遇에 사람들은 證券을 팔아 貨幣의 超過需要에 對處하고자 할 것이므로 證券값은 下落하고 이 結果로 利子率은 上昇하게 된다. 이는 곧 貨幣에 대한 需要曲線의 右側移動을 意味한다. 따라서 (y_0, r_0) 과 (y_1, r_1) 을 나타내는 點을 連結하면 그림 2 - 2와 같은 右上向의인 LM曲線이 誘導된다.

LM曲線이 右上向의인가는 數學的으로 證明될 수 있다. 貨幣市場의 均衡條件을 다시 쓰면,

$$\frac{M}{P} = l_t(y) + l_s(r)$$

이 式을 전미분하면,

$$d\left(\frac{M}{P}\right) = l_t' \cdot dy + l_s' \cdot dr$$

M은 外生變數이므로 $d\left(\frac{M}{P}\right) = 0$ 가 되어 結局,

$$\frac{dr}{dy} = -\frac{l_t'}{l_s'}$$

여기에서 $l_t' > 0$, $l_s' < 0$ 이므로 $\frac{dr}{dy} > 0$ 이 되어 LM曲線은 右上向의이다.

그런데 開放經濟에서 國際收支가 貨幣市場에 미치는 效果를 잠깐 살펴 볼 必要가 있다. 먼저 供給의 境遇에, 만일 國際收支가 黑字를 나타내면 이는 貨幣市場에서 通貨供給의 增加效果를 가져오게 되고, 赤字를 나타내면 그 反對가 된다. 한편 需要의 境遇에는, 國際收支 狀態가 別다른 效果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假定된다.

3) 外換市場의 均衡

變動換率制度를 假定할 때 外換市場의 均衡은 外換의 供給과 外換에 대한 需要가 같을 때 이루어지고 이 結果로 換率(e)이 決定된다.

外換市場의 均衡을 나타내는 式은,

$$Px(P, e) + F_n(r) = e P_f m(y, P, e) + F_t(r)$$

外換의 供給(Fs)은 外國人의 自國 商品과 用役의 輸入需要, 金融資產需要, 實物資產需要 등에 의해서 決定된다. 外換의 供給函數는,

$$F_s = Px(P, e) + F_n(r), \quad \frac{\partial F_s}{\partial P} < 0, \quad \frac{\partial F_s}{\partial e} > 0, \quad \frac{dF_n}{dr} > 0$$

여기에서 Px 는 名目輸出(X), F_n 은 海外로 부터의 資本流入을 意味한다.

만일 換率이 引上되면 (自國의 境遇에는 評價節下) 外換의 供給은 어떻게 될 것인가? 換率이 引上되면, $\frac{\partial x}{\partial e} > 0$ 이므로, 自國商品에 대한 外國人의 需要가 增加하여 外換의 供給은 增加한다. 이는 外換의 供給曲線이 換率引上에 대하여 右上向의 傾을 意味한다.

한편 國內物價와 國內利率의 變化는 外換의 供給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게 되는가? 우선 國內物價가 上昇하면 自國의 商品과 用役に 대한 外國人의 需要는 一般的으로 減少한다.³⁾ 따라서 國內物價가 上昇하면 外換의 供給은 減少하게 되는데 이 結果는 外換의 供給曲線의 左側移動으로 나타난다. 다음에 國內利率이 上昇하면, $\frac{dFn}{dr} > 0$ 이므로, 海外資本은 國內으로 流入한다. 이 結果는 外換의 供給曲線의 右側移動으로 나타난다.

外換에 대한 需要 (Fn)는 自國人의 外國 商品과 用役의 輸入需要, 金

註 3) 名目輸出을 X라고 하면, $X = Px (P, e)$ 로 쓸 수 있다. P의 上昇이 輸出 (X)에 미치는 效果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X函數를 전미분하면 된다.

$$\begin{aligned} dX &= x \cdot dP + P \left(\frac{\partial x}{\partial P} dP + \frac{\partial x}{\partial e} de \right) \\ &= \left(x + P \frac{\partial x}{\partial P} \right) dP + P \frac{\partial x}{\partial e} de \\ &= x \left(1 + \frac{P}{x} \frac{\partial x}{\partial P} \right) dP + P \frac{\partial x}{\partial e} de \\ &= x (1 + \epsilon) dP + P \frac{\partial x}{\partial e} de \quad (\epsilon \text{는 國內物價에 대한 外國人의 輸入需} \\ &\quad \text{要(自國의 輸出) 彈力性)} \end{aligned}$$

여기에서 $\epsilon < 0$ 바로 앞의 식에서, $de = 0$ 라고 하면, 國內物價 P의 上昇이 名目輸出 X에 미치는 效果는 ϵ 의 크기에 달려 있다. 즉,

$$\epsilon = -1 \text{ 이면 (單位彈力的), } dX = 0$$

$$\epsilon > -1 \text{ 이면 (非彈力的), } dX > 0$$

$$\epsilon < -1 \text{ 이면 (彈力的), } dX < 0$$

그런데 輸出商品은 現實적으로 海外市場에서 많은 代替材를 갖고 있다고 볼 때, 輸出의 價格彈力性은 彈力的일 것이므로 國內物價의 上昇은 一般的으로 名目輸出의 減少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融資産需要, 實物資産需要等に 의해서 決定된다. 外換에 대한 需要函數는,

$$F_D = e P_f m(y, P, e) + F_t(r), \frac{\partial m}{\partial y} > 0, \frac{\partial m}{\partial P} > 0, \frac{\partial m}{\partial e} < 0, \frac{dF_t}{dr} < 0$$

여기에서 海外物價 P_f 는 外生變數로 假定되고, $e P_f m$ 은 國內價格으로 換算된 名目輸入(M), F_t 는 國內로부터의 資本流出을 意味한다. 만일 換率이 引上되면, 外換에 대한 需要는 어떻게 될 것인가? 換率이 引上되면, 外國商品에 대한 自國人の 需要는 一般的으로 減少하여 外換에 대한 需要역시 減少한다.⁴⁾ 이는 外換에 대한 需要曲線이 換率引上에 대하여 右下向의 임을 意味한다.

한편 所得, 國內物價, 國內利率의 變化는 外換에 대한 需要에 어떠한

註4) 國內價格으로 換算된 名目輸入을 M이라고 하면, $M = e P_f m(y, P, e)$ 로 쓸 수 있다. e 의 上昇이 輸入(M)에 미치는 效果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M函數를 全微分하면 된다.

$$dM = P_f m de + e P_f \left(\frac{\partial m}{\partial y} dy + \frac{\partial m}{\partial P} dP + \frac{\partial m}{\partial e} de \right)$$

만일 $dy = dP = 0$ 라고 하면,

$$dM = \left(P_f m + e P_f \frac{\partial m}{\partial e} \right) de$$

$$= P_f m \left(1 + \frac{e}{m} \frac{\partial m}{\partial e} \right) de$$

$$= P_f m (1 + n) de \quad (n \text{는 換率에 대한 自國人の 輸入需要 彈力性})$$

여기에서 $n < 0$ 換率 e 의 上昇이 名目輸入 M에 미치는 效果는 n 의 크기에 달려 있다. 즉,

$$n = -1 \text{ 이면 (單位彈力的), } dM = 0$$

$$n > -1 \text{ 이면 (非彈力的), } dM > 0$$

$$n < -1 \text{ 이면 (彈力的) } dM < 0$$

그런데 輸入商品은 現實적으로 國內市場에서 많은 代替材를 갖고 있다고 볼 때, 輸入의 換率彈力性은 彈力的일 것이므로 換率의 上昇은 一般的으로 名目輸入의 減少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影響을 미치게 되는가? 所得이 增加하면, $\frac{\partial m}{\partial y} > 0$ 이므로, 外國商品의 輸入이 增加하여 外換에 대한 需要도 增加한다. 이는 外換에 대한 需要曲線의 右側移動으로 나타난다. 國內物價가 上昇하면, $\frac{\partial m}{\partial P} > 0$ 이므로, 商品需要 需要가 增加하여 外換에 대한 需要도 增加한다. 이는 外換에 대한 需要 曲線의 右側移動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國內利率이 上昇하면, $\frac{dF_t}{dr} < 0$ 이므로, 資本의 海外流出은 減少하여 外換에 대한 需要曲線은 左側移動하게 된다.

外換市場의 均衡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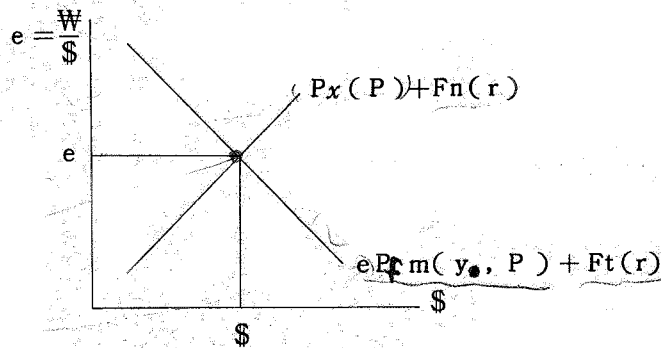


그림 3. 外換市場의 均衡

그런데 變動換率制度에서는 換率은 恒常 均衡狀態에서 決定된다. 이것은 變動換率制度에서는 國際收支가 항상 均衡을 이루게 됨에 意味한다. 이를 理解하기 위해서 먼저 國際收支(B)의 表記方法을 살펴보자. 國際收支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B = (X + F_n) - (M + F_t)$$

즉, 國際收支는 名目輸出額(X)과 國內資本流入額(F_n)의 合에서 名目輸入額(M)과 海外資本流出額(F_t)의 合을 뺀 차이이다. 따라서 國際收支가 均衡을 이룬다면 $B = 0$ 가 되므로 國際收支의 均衡條件은,

$$X + F_n = M + F_t$$

로 쓸 수 있다. 위의 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국제收支의 균형條件은

$$P_x(P, e) + F_n(r) = e P_f m(y, P, e) + F_t(r)$$

가 되고 이는 그림 3에서와 같이 外換市場의 均衡條件式과 一致하고 있다.

國際收支의 均衡으로부터 開放經濟에서의 對外均衡을 意味하는 BP 曲線이 誘導된다. 이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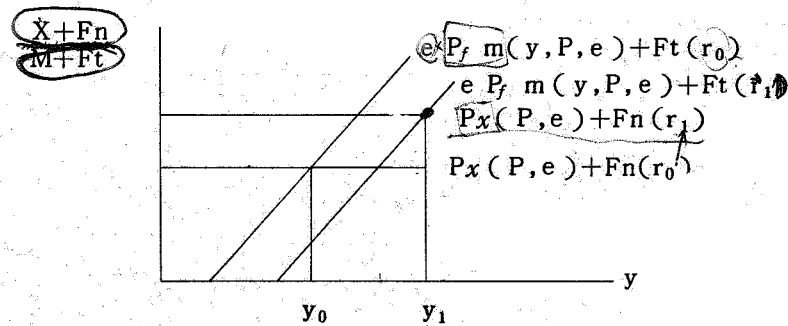


그림 4 - 1. 國際收支의 均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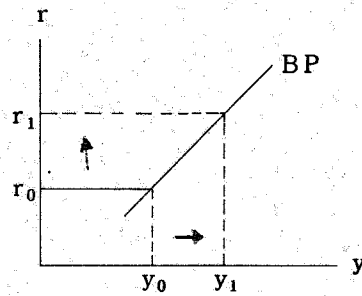


그림 4 - 2. BP 曲線

그림 4. 國際收支의 均衡과 BP 曲線

그림 4 - 1에서, 外換의 供給은 y 와는 關係가 없으므로 外換의 供給函

數는 橫軸과 平行하고 外換에 대한 需要는 y 의 增加函數이므로 外換에 대한 需要函數는 그 기울기가 正으로 나타난다. 國際收支의 均衡은 $X + F_n$ 函數와 $M + F_t$ 函數가 서로 交차하는데서 이루어진다. 이제 國內利率이 r_0 에서 r_1 으로 上昇한다고 하자. 國內利率이 上昇하면, $\frac{dF_n}{dr} > 0$ 이므로, 資本流入이 增加하여 $X + F_n$ 曲線은 上向移動하고, 反面에 $\frac{dF_t}{dr} < 0$ 이므로, 주어진 y 에서 資本流出이 減少하여 $M + F_t$ 曲線은 右側移動한다. 이 結果로 所得 y_0 에서는 國際收支 黑字가 發生한다. 이 境遇에, 換率의 變動없이 國際收支가 均衡을 이루기 위해서는 增加된 所得 (y_1)을 바탕으로 輸入(M)의 增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論理를 바탕으로, (r_0, y_0) 과 (r_1, y_1) 을 나타내는 점을 連結하면 그림 4-2와 같은 右上向의 BP 曲線이 誘導된다. BP 曲線상의 모든 點들은 外換市場이 均衡狀態임을 意味한다.⁵⁾

BP 曲線이 右上向의인가는 數學적으로 證明될 수 있다. 國際收支의 均衡條件을 다시 쓰면,

$$X + F_n = M + F_t,$$

또는

$$P_x(P, e) + F_n(r) = e P_f m(y, P, e) + F_t(r)$$

이 式을 全微分한 다음

$$dP = de = 0$$

라고 假定하여 整理하면,

註 5) BP 曲線上에서 벗어난 左側의 點들은 주어진 r 에서 y 가 낮아 國際收支가 黑字이고, 右側의 點들은 주어진 r 에서 y 가 높아 赤字임을 意味한다.

$$\frac{dr}{dy} = \frac{e P_f \frac{\partial m}{\partial y}}{F'n - F't'}$$

여기에서 $e P_f > 0$, $\frac{\partial m}{\partial y} > 0$, $F'n > 0$, $F't' < 0$ 이므로 $\frac{dr}{dy} > 0$ 이 되어 BP 곡선은 右上向의이다.

이제 國內物價와 換率의 變化가 國際收支의 均衡에 미치는 效果는 어떠한가? 먼저 國內物價가 上昇한다고 하자,⁶⁾ 國內物價의 上昇은 一般的으로 輸出(X)을 減少시키므로⁶⁾ $X + F'n$ 곡선은 下向移動하고, 反面에 $\frac{\partial m}{\partial P} > 0$ 이므로 $M + F't'$ 곡선은 左側移動하여 주어진 換率에서 國際收支는 赤字가 된다. 따라서 주어진 換率에서 國際收支가 均衡이 되기 위해서는 所得의 減少를 통해 輸入이 減少해야 한다. 이 結果는 BP 곡선의 左側移動으로 나타난다. 다음에는 換率이 上昇(評價節下)한다고 하자. 換率의 上昇은, $\frac{\partial x}{\partial e} > 0$ 이므로 $X + F'n$ 곡선은 上向移動하고, 換率의 上昇은 一般的으로 輸入(M)을 減少시키므로⁷⁾ $M + F't'$ 곡선은 右側移動하여 주어진 換率에서 國際收支는 黒字가 된다. 따라서 주어진 換率에서 國際收支가 均衡이 되기 위해서는 所得의 增加를 통해 輸入이 增加해야 한다. 이 結果는 BP 곡선의 右側移動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LM 곡線과 BP 곡線의 기울기의 크기는 어떻게 다른가? 이미 앞에서,

LM 곡線의 기울기는,

$$\frac{dr}{dy} = - \frac{\partial t'}{\partial s'}$$

註 6)各註 3)參照.

7)各註 4)參照.

BP 曲線의 기울기는,

$$\frac{dr}{dy} = \frac{e Pf \frac{\partial m}{\partial y}}{Fn' - Ft'}$$

임을 밝혔다. 그런데 $\ell s'$ 과 $Fn' - Ft'$ 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假定하면, $e Pf \frac{\partial m}{\partial y}$ 은 $\ell t'$ 보다 現實적으로 훨씬 더 큰 숫자임을 分明하므로 BP 曲線의 기울기는 LM 曲線의 기울기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⁸⁾

4) 需要側面의 均衡

開放經濟에서 需要側面의 均衡은 商品市場, 貨幣市場 그리고 外換市場의 同時均衡으로 부터 誘導된다. 이는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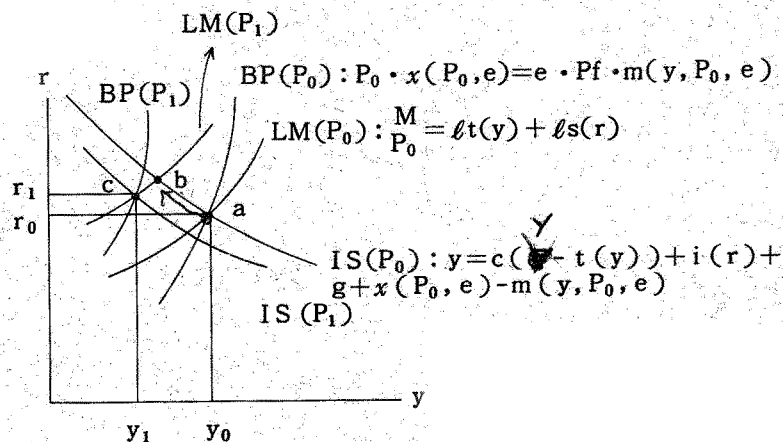


그림 5 - 1. 開放經濟에서의 需要側面의 均衡

註 8) 投機的 動期에 의한 貨幣需要 ($\ell s = \ell s(r)$) 나 純資本流入 ($F = F(r)$), 여기에 서 $F = Fn(r) - Ft(r)$ 은 모두 利率의 函數인데 國內利率이 變하는 境遇에 投機的 動期에 의한 貨幣需要의 變化率과 純資本流入의 變化率間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BP 曲線式의 分子 $e Pf \frac{\partial m}{\partial y}$ 의 $\frac{\partial m}{\partial y}$ 과 LM 曲線式의 分子 $\ell t' (= \frac{d\ell t}{dy})$ 은 그 크기가 서로 비슷하면서 모두 0보다 작지만 $e Pf$ 는 現實적으로 큰 숫자임을 意味하므로 BP 曲線의 기울기는 LM 曲線의 기울기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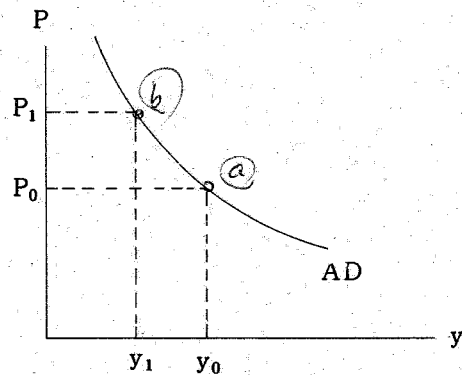


그림 5 - 2. 開放經濟의 總需要曲線

그림 5. 開放經濟에서의 需要側面의 均衡

이 그림에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商品市場의 均衡에서 y 가, 貨幣市場의 均衡에서 r 이, 그리고 外換市場의 均衡(또는 國際收支의 均衡)에서 e 가 決定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 - 1의 a 점). 그러나 이 體系에서는 方程式은 셋이나 未指數가 넷(y, r, e, P)이 되어 數學적으로 풀릴 수 없다. 이제 物價水準 P 가 上昇한다고 하자.

物價水準의 上昇은 먼저 貨幣市場에서 實質通貨供給의 減少效果를 가져와 LM曲線을 左側移動시키고 이 結果로 利子率이 上昇한다. 利子率의 上昇은 商品市場에서 投資를 減少시켜 所得이 減少한다. 이때 所得變化는 주어진 IS曲線上의 b 점에서 이루어진다. b 점은 商品市場과 貨幣市場의 同時均衡, 즉 對內均衡을 意味하나 對外均衡은 아직도 BP曲線上의 a 점에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b 점은 지금 國際收支 面에서 赤字를 나타내고 있음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⁹⁾ 物價水準의 上昇은 輸出의 減少와 輸入의 增加를 가져와 商品市場에서는 所得이 減少한다. 이는 IS曲線의 左側移動으로 나타난다. 또한 物價水準의 上昇은 輸出의 減少와 輸入의 增

註 9) 各註 5) 參照.

加를 가져와 外換市場에서는 換率이 引上하여 本來의 均衡換率에서 나타났던 國際收支 赤字를 다시 均衡狀態로 調整해 나간다. 이 結果로 BP 曲線은 左側移動한다. 따라서 새로운 均衡은 $IS(P_1)$, $LM(P_1)$, $BP(P_1)$ 曲線이 교차하는 c 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P_0, y_0) 와 (P_1, y_1) 를 나타내는 점을 연결하면 그림 5-2에서와 같은 右下向的인 總需要曲線(AD)이 誘導된다. AD 曲線上的 點은 開放經濟에 있어서 對內均衡과 對外均衡의 同時均衡을 意味한다.

나. 供給側面의 均衡

開放經濟에서 供給側面의 均衡은 두가지 假定을 바탕으로 分析되고 있다. 하나는 短期均衡分析이고 다른 하나는 國際間的 勞動力移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勞動市場의 均衡만으로도 供給側面의 均衡은 誘導될 수 있으며 이 結果는 閉鎖經濟나 開放經濟의 境遇에 모두 一致한다.

1) 勞動市場의 均衡

勞動市場의 均衡은 勞動의 供給과 勞動에 대한 需要가 같을 때 이루어지고 이 結果로 雇傭이 決定된다.

勞動市場의 均衡을 나타내는 式은,

$$P^*g(N) = P \cdot f'(N)$$

勞動의 供給은 勤勞와 餘暇 間의 選擇으로부터 效用을 極大化하려는 勤勞者의 行動으로부터 誘導된다. 이 境遇 餘暇는 正常材로 假定된다. 이를 式으로 나타내면,

$$\text{極大化: } u = u(y, \ell)$$

$$\text{制約條件: } y = w(T - \ell)$$

여기에서 u : 效用函數, y : 實質勤勞所得, ℓ : 餘暇時間, w : 1人當 實質賃金率, T : 總費用可能時間을 意味한다.

이 式의 效用極大化條件으로부터 實質賃金率과 關聯해서 勤勞時間이 誘導된다. 즉, 勤勞者가 追求하는 效用極大化는 所得에 對한 餘暇의 限界代替率이 實質賃金率과 같게 될 때 이루어지며 이 結果로 勤勞時間이 決定된다.¹⁰⁾

註 10) 勤勞者가 追求하는 效用極大化 條件으로부터 勞動의 供給은 다음과 같이 誘導된다.

$$\text{極大化: } u = u(y, \ell) \dots\dots\dots ①$$

$$\text{制約條件: } y = w \cdot (T - \ell) \dots\dots\dots ②$$

①式을 全미분한 다음 效用極大極大化가 이루어지는 條件으로 나타내면,

$$du = 0 = \frac{\partial u}{\partial y} dy + \frac{\partial u}{\partial \ell} d\ell \dots\dots\dots ③$$

③式의 兩便을 $d\ell$ 로 나눈 다음 整理하면,

$$\frac{dy}{d\ell} = - \frac{\partial u / \partial \ell}{\partial u / \partial y} \quad \text{또는} \quad - \frac{dy}{d\ell} = \frac{\partial u / \partial \ell}{\partial u / \partial y} \dots\dots\dots ④$$

한편 ②式을 全미분하면,

$$\begin{aligned} dy &= (T - \ell) dw + w \cdot d(T - \ell) \\ &= (T - \ell) dw + w \cdot (dT - d\ell) \dots\dots\dots ⑤ \end{aligned}$$

그런데 正義에 의해서 $dT = 0$ 이다. 따라서 $dw = 0$ 으로 假定하면 ⑤式은 다음과 같이 된다.

$$dy = -w \cdot d\ell \dots\dots\dots ⑥$$

⑥式의 兩便을 $d\ell$ 로 나누어 整理하면

$$\frac{dy}{d\ell} = -w \quad \text{또는} \quad - \frac{dy}{d\ell} = w \dots\dots\dots ⑦$$

따라서 ④式과 ⑦式으로부터 效用極大化條件을 誘導할 수 있다.

$$- \frac{dy}{d\ell} = \frac{\partial u / \partial \ell}{\partial u / \partial y} = w \quad \text{또는} \quad MRS_{\ell, y} = \frac{MU_{\ell}}{MU_y} = w \dots\dots\dots ⑧$$

⑧式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餘暇와 勤勞間의 組合을 나타내는 無差別曲線이 賃金率曲線과 點點을 이룰 때 勤勞者의 效用이 極大화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런데 賃金이 上昇할 때는 勤勞時間의 減少를 가져오는 所得效果와 勤勞時間의 增加를 가져오는 代替效果가 나타나게 되는데 賃金上昇이 勤勞時間에 미치게 될 最終적인 效果는 이 두 效果中 어느것이 더 支配적인가에 따라 달려 있다. 이것은 結局 實證의 問題에 屬한다. 그런데 勤勞의 供給曲線은 實質賃金率의 上昇에 대해서 右上向적이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¹⁾

이제 勤勞의 供給函數($g(N)$)는

$$g(N) = w$$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주어진 實質賃金率을 바탕으로 勤勞者가 效用 極大化를 이룰 때 그로부터 유도되는 勤勞의 供給函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勤勞의 供給을 決定하는 賃金이 實質賃金이라고 看做해왔다. 이러한 假定은 現實적으로 妥當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理由는 어느 境遇에나 勤勞者가 關心을 갖는 것은 名目賃金이 아니고 實質賃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實際로 使用되고 있는 것은 實質賃金이 아니고 名目賃金이다. 따라서 勤勞供給函數는 이제 名目賃金과 關聯해서 表現할 必要가 있다.

勤勞者가 勤勞의 供給을 決定할 때 비록 實質賃金에 關心을 둔다 할지라도 實際物價水準이 즉각적으로 把握되지 않는 한 實質賃金은 즉각적으로 把握될 수 없다. 따라서 勤勞者는 實質賃金を 豫測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實際物價水準에 관한 情報를 바탕으로 實際物價水準에 豫測하지 않으면 안된다. 豫測物價(P^*)와 實際物價(P)間的 關係는 다음과 같이 表現할 수 있다.

註 11) 예를들면, D. Hamermesh & A. Lees, The Economics of Work and Pay, 3rd ed., Harper and Row Publishers, 1984, p. 34 를 參照할 것.

$$P^* = p(P), 0 \leq p' \leq 1$$

이 식은 實際物價變化에 관한 情報가 完璧하다면 ($p' = 1$) 勤勞者의 豫測物價는 實際物價와 같게 되고, 情報가 전혀 없다면 ($p' = 0$) 勤勞者는 物價變化를 전혀 把握하지 못하고, 情報가 完璧하다면 ($0 < p' < 1$) 豫測物價는 實際物價보다 그 水準이 낮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제 勤勞者가 名目賃金과 豫測된 物價를 바탕으로 實質賃金を 먼저 豫測한 다음에 勞動의 供給을 決定한다고 볼 때,¹²⁾ 이를 數式으로 나타내면,

$$g(N) = w^* = \frac{W}{P^*}$$

여기에서 w^* 는 豫測된 實質賃金を 나타낸다.

위의 식을 다시 整理하면,

$$P^* g(N) = W$$

이것은 勞動의 供給은 實質賃금이 아닌 名目賃金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 境遇에, 高전학과나 合理的의期待假說의 假定처럼 物價에 관한 情報가 短期에서 조차 完璧하다면 (즉, $p' = 1$) $P^* = P$ 가 되므로 勞動의 供給函數는 다시

$$g(N) = w$$

가 된다.

註12) W. Branson and J. Litvack, Macroeconomics, 2nd ed., Harper & Row, Publishers, 1981, p.115. R. Frisch는 이를 巨視經濟理論의 發展에 대한 W. Branson의 寄與라고 쓰고 있다. R. Frisch, Theories of Inf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190.

한편 勞動에 대한 需要는 生産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派生 수요이다. 만일 商品市場과 勞動市場이 競爭的이고 企業이 追求하는 目的이 利潤極大화에 있다고 假定하면 利潤函數는 短期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i = Pf(N, K) - WN - rK - R$$

여기에서 π : 利潤, R : 勞動과 資本 以外の 費用, 그리고 다른 變數는 表 1과 같다.

企業의 利潤은 限界利潤이 0일 때 極大化되므로 利潤極大化의 1차條件은,

$$\frac{\partial \pi}{\partial N} = 0 = P \cdot f'(N) - W$$

이를 다시 쓰면,

$$P \cdot f'(N) = W$$

이것이 한계생산액

이것은 企業이 利潤極大化를 위해서 限界生産物價値 ($P \cdot f'(N)$)만큼 名目賃金 (W)으로 支拂하고 양자가 같은데서 勞動에 대한 需要가 決定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제 名目賃金이 下落한다고 하자. 이 境遇 주어진 雇傭에서 勞動의 限界生産物價値는 名目賃金보다 더 크기 때문에 企業家は 勞動에 대한 需要를 增加시켜갈 것이다. 그런데 勞動의 限界生産性 ($f'(N)$)은 數學體減의 法則이 適用되므로 勞動에 대한 需要가 增加함에 따라 勞動의 限界生産物價値도 減감해갈 것이다. 이 境遇에 利潤極大化는 勞動의 限界生産物價値가 下落된 名目賃金과 다시 같게 되는 데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勞動에 대한 需要曲線은 勞動의 限界生産物價値曲線으로부터 誘導되며 右下向的이다. 이는 實證分析을 통해 그 妥當성이 認定되고 있다.¹³⁾

앞에서 論議한 內容을 勞動에 對한 需要函數로 나타내면,

$$P f'(N) = W$$

勞動市場의 均衡은 그림 6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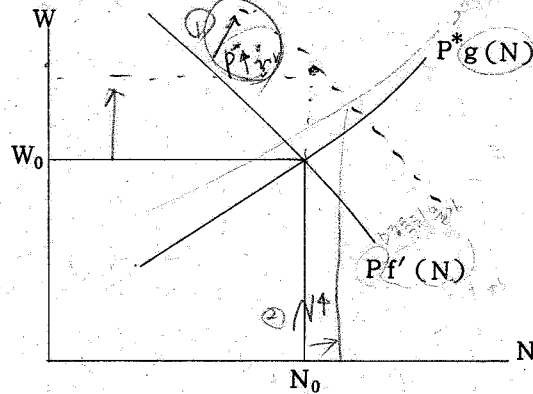


그림 6. 勞動市場의 均衡

2) 供給側面의 均衡

國際間에 勞動部의 移動이 없다고 가정하면 勞動市場의 均衡에서 決定된 雇傭을 통해 生産函數(短期)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勞動市場의 均衡은 物價變化에 의해서 影響을 받는다는 것을 理解할 必要가 있다. 勞動市場의 均衡條件을 다시 쓰면,

$$P^* g(N) = P f'(N)$$

이 式에서 物價가 上昇하면 勞動의 供給과 勞動에 對한 需要가 각각 影響을 받게 되는데 그 影響에는 차이가 있게 된다.¹⁴⁾ 여기에서 實際物價

註 13) 大部分 先進國의 境遇에 實質賃金에 對한 短期勞動의 需要彈力性은 約 -0.3으로 나타나 있다. D. Hamermesh & A. Lees, op. cit., pp.97-98.

14) W. Branson, Macroeconomic Theory and Policy, 2nd ed., Harper & Row, Publishers, 1979, pp.109 - 110.

準의 變化는 企業家에게는 즉각적으로 把握되나 勤勞者에게는 假定에 따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 그 차이는 $P^* = \frac{P(P)}{P(P)}$ 의 關係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p' = 1$ 인 경우, 이는 實際物價水準의 變化에 關한 情報가 完璧한 境遇에 該當된다. 예를 들면, 短期에서 情報가 完璧하다고 假定하는 高進학과와, 最短期에서 조차 情報가 完璧하다고 假定하는 合理的期待假說이 이 境遇에 속한다. 또한 物價變化와 關聯해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調整마저 즉각적이라고 假定하면 物價變化는 勞動의 供給에 전혀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物價變化만큼 賃金變化도 이루어져 勤勞者가 關心을 갖는 實質賃金은 전혀 變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p' = 0$ 인 경우, 이는 物價上昇으로 企業家가 雇傭을 增加시키고자 名目賃金を 引上시킬 때 勤勞者는 物價變化에 關한 情報를 전혀 얻지 못해 名目賃金の 增加를 實質賃金の 增加로 착각하는 境遇에 該當된다. 이 때 勞動의 供給은 주어진 勞動의 供給曲線上에서 決定된다.

셋째, $0 < p' < 1$ 인 경우, 이는 一般的인 케인즈學派의 境遇에 該當된다. 만일 短期에서 物價變化에 關한 情報가 完璧하지 못하거나 설사 完璧하다 할지라도 이와 關聯된 調整이 즉각적이지 못한다면 實際物價變化는 名目賃金變化에 正確하게 反映되지 않는다($\Delta W < \Delta P$). 따라서 短期에서 雇傭은 增加하게 되는데 이는 實質賃金の 下落의 代가로 可能하다. 이같은 論理는 賃金契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現實적으로 妥當하다고 할 수 있다.

結論적으로, 短期에서 物價變化가 雇傭의 變化에 미치는 效果는 $p' = 1$ 인 경우에는 전혀 없고 $p' = 0$ 인 境遇에는 $0 < p' < 1$ 인 境遇보다 더 크다. $0 < p' < 1$ 인 경우가 이 글에서는 一般的인 것으로 使用되고 있다. 이러한 論理를 바탕으로 이제 總供給(AS)曲線을 誘導할 수 있다. 이는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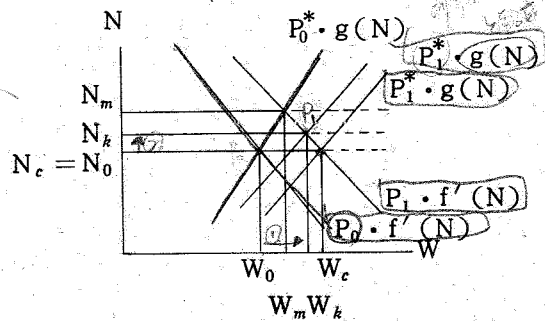


그림 7 - 1. 勞動市場의 均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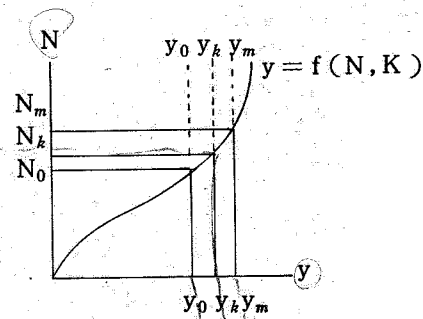


그림 7 - 2. 生産函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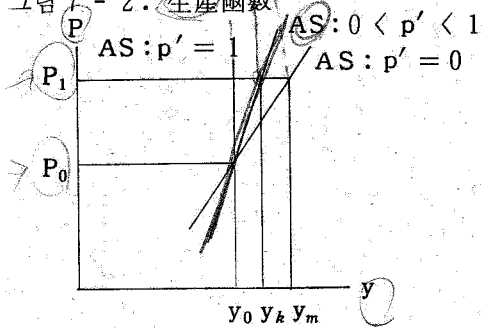


그림 7 - 3. 總供給曲線

c : 고전학파의 境遇 $p=1$
 k : 케인즈學派의 境遇 $0 < p' < 1$
 m : 貨幣的 환각이 全적으로 支配하는 境遇 $p'=0$

그림 7. 供給側面의 均衡

그림 7-1에서 物價가 上昇하면 勞動에 대한 需要曲線은 物價上昇率만큼 右側移動한다. 그러나 勞動의 供給曲線은 $P' = 1$ 인 境遇에는 名目賃金增加率이 物價上昇率만큼 實現되어 雇傭增加는 N_0 에서 決定되고, $0 < p' < 1$ 인 境遇에는 名目賃金增加率이 物價上昇率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雇傭은 N_k 에서 決定되고 $P' = 0$ 인 境遇에는 名目賃金 增加를 實質賃金增加로 착각하여 雇傭은 N_m 에서 決定된다.

따라서 주어진 生産函數를 바탕으로 總供給은 y_0, y_k, y_m 에서 決定되고 (P_0, y_0) 와 $(P_1, y_1), (P_1, y_k), (P_1, y_m)$ 의 점을 각각 連結하면 總供給曲線이 誘導된다. AS曲線이 수직인 境遇를 高전학과 또는 合理的 期待假設의 總供給曲線, 기울기가 가장 큰 境遇를 貨幣的 환각이 전적으로 支配하는 總供給曲線, 그리고 기울기가 中間인 것을 케인즈學派의 總供給曲線이라고 부른다.

3) 開放經濟에서의 一般均衡

開放經濟에서의 一般均衡은 그림 8에서처럼 需要側面의 商品市場, 貨幣市場, 그리고 外換市場의 同時均衡 (IS, LM, BP의 交차점)에서 誘導된 總需要曲線 (AD)과 供給側面의 勞動市場의 均衡 (N)을 통해 生産函數를 바탕으로 誘導된 總供給曲線 (AS)이 갈게 되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 過程에서 한 經濟의 所得, 利子率, 換率, 雇傭, 그리고 物價水準이 決定된다. 여기에서 換率은 直接的으로 決定되는 것은 아니지만 國際收支의 均衡을 나타내는 BP曲線으로 부터 間接的으로 求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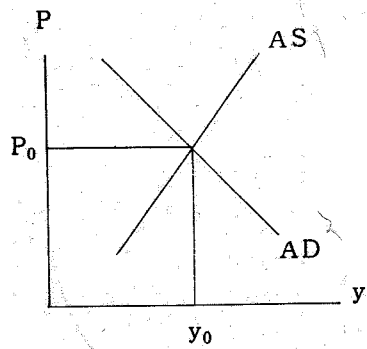


그림 8 - 1. 總供給과 總需要의 均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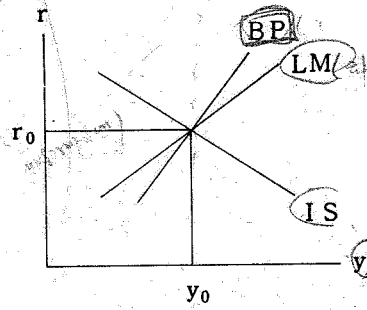


그림 8 - 2. 商品市場, 貨幣市場, 外換市場의 均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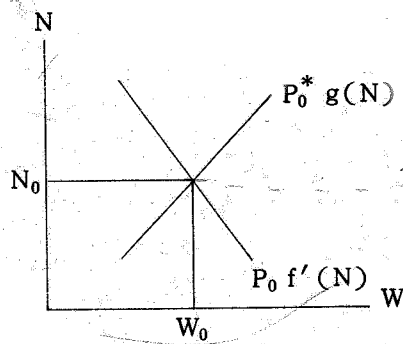


그림 8 - 4. 勞動市場의 均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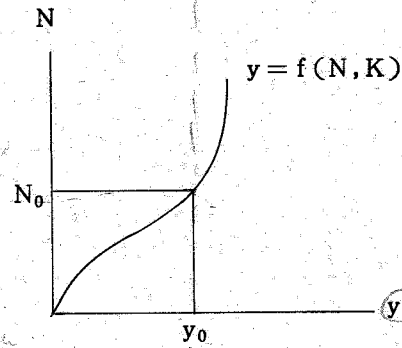


그림 8 - 3. 生産函數

그림 8. 開放經濟에서의 一般均衡

Ⅲ. 技術發展의 經濟的 效果

작은 規模의 經濟에서 技術發展은 經濟 全般에 걸쳐 어떠한 效果를 미치게 될 것인가? 技術發展은 빠른 速度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나라에서 政策目標로 채택되고 있는 趨勢를 考慮할 때 技術發展은 결코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성질의 問題이다. 여기에서는 技術發展의 問題를 開放 經濟에서의 一般均 體系를 바탕으로 다루고자 한다.

技術發展 問題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生産함수를 다음과 같이 변형시킬 必要가 있다. 즉,

$$y = f(N, \bar{K}, t), \frac{dy}{dN} > 0, \frac{dy}{dt} > 0$$

여기에서 t 는 生産要素로서 追加된 技術을 意味하고 논리의 단순화를 위해서 $K = \bar{K}$ 라고 가정한다. 技術發展과 關聯해서 技術發展을 위한 政策手段이 어떠한 것이고 이 결과로 나타나는 技術發展의 種類가 어떠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하기로 한다.

技術發展의 效果는 먼저 生産의 增加를 가져온다. (그림 8-3에서 生産함수의 우측 이동). 生産의 增加는 한 經濟에 超過 供給狀態 (그림 8-1에서 AS 곡선의 우측이동)를 가져와 物價는 下落하기 시작한다. 生産의 增加는 同時에 勞動의 限界生産物價値를 增加시켜 (그림 8-4에서 勞動에 대한 需要曲線의 우측이동) 企業家は 勞動에 대한 需要를 增加시킨다.

그런데 生産의 增加를 인한 物價의 下落은 이어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影響을 미치기 시작한다. 수요측면에서 物價의 下落은 商品市場에서 輸出의 增加와 收入의 減少를 가져와 所得을 增加시키고 (그림 8-2에서 IS

曲線의 상향이동), 貨幣市場에서는 實質通貨增加 效果를 가져와 利子率을 下落시킨다.(그림 8-2에서 LM曲線의 우측이동). 그런데 利子率의 下落은 投資增加를 가져와 所得을 增加시킨다.(상향 이동된 IS曲線 상에서의 이동). 따라서 物價의 下落과 關聯, 商品市場과 貨幣市場의 同時均衡에서 유도되는 大內均衡은 增加된 所得水準에서 이루어진다.(이 때 利子率變化는 미정임).

한편 外換市場에서는 物價의 下落으로 輸出이 增加하여 外換의 供給이 增加하고(外換의 供給曲線의 우측이동) 收入이 減少하여 外換에 대한 需要가 減少하게 되므로(外換에 대한 需要曲線의 좌측이동) 超過供給現象이 나타나(이는 國際收支의 흑자임) 환율은 下落한다. 그러나 物價의 下落으로 大內均衡에서는 所得이 增加했으므로 所得의 增加는 外換에 대한 수요를 增加시켜 환율은 이제 均衡을 향해 상승하게 된다.(BP曲線의 우측이동).

이렇게 하여 技術發展의 結果로 이루어진 수요측면의 새로운 大內의 同時均衡은 換率과 利子率의 水準을 미정으로 남겨둔 채 所得의 增加를 가져오게 된다.

供給側面에서 物價의 下落은 勞動市場의 需要와 供給에 各各 다른 效果를 가져온다. 優先 勞動의 需要側面에서 物價의 下落은 勞動의 限界生産物 加値를 下落시키므로 勞動에 대한 需要는 減少하게 된다.(그림 8-4에서 技術發展으로 인한 生産의 增加는 勞動에 대한 需要曲線을 우측이동시켰으나 物價의 下落은 이를 다시 좌측이동 시킴). 勞動의 供給側面에서 物價의 下落은 實質賃金을 상승시켜 勞動의 供給을 增加시킨다. (그림 8-4 勞動의 供給曲線의 상향이동). 따라서 技術發展이 일어난 후 生産性的의 增加로 인한 勞動에 대한 需要增加와 物價의 下落으로 인한 勞動에 대한

需要減少가 서로 상쇄된다고 가정할 때, 技術發展은 物價下落을 通해 결국 勞動市場에서 雇傭의 增加를 가져오게 된다. 雇傭의 增加는 繼續해서 供給의 增加에 影響을 미치게 되어 物價의 下落은 지속된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技術發展이 한 작은 規模의 開放經濟에 새로운 均衡을 가져오게 된다면 거시적인 側面에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實質國民所得: 增加

物價水準: 下落

雇傭: 增加¹⁵⁾

利子率: ?

換率: ?

明目賃金: ? (一般的으로 增加)¹⁶⁾

實質賃金: 增加

여기에서는 技術發展 問題를 一般均衡 體系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다루기는 했지만 이러한 논리에 일단 익숙해지고 나면 政府支出의 增加, 通貨 팽창, 원유가 인상, 노사분규로 인한 賃金引上等의 效果分析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註15) 技術發展이 雇傭에 미치는 效果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로 남아 있다. 技術發展이 雇傭減少를 가져온다는 입장은 자동화등에 關心을 두고 있으나 雇傭增加를 가져온다는 입장은 고용기회의 창출에 關心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역시 실증의 結果가 解決해 줄 것이다.

16) 技術發展은 經濟的 후생의 向上을 가져온다는 點에서 明目賃金의 상승은 기대할만 하다.

IV . 結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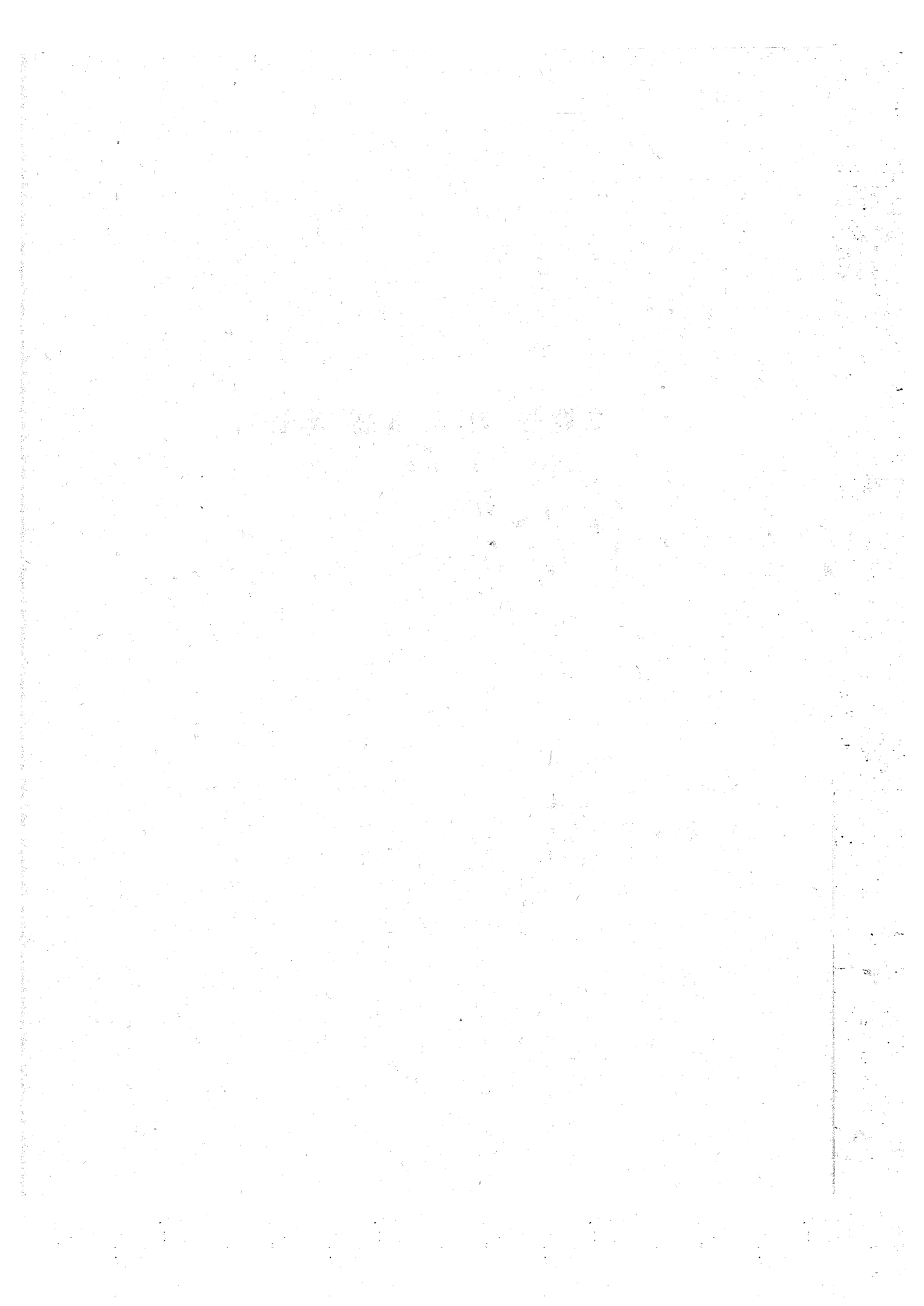
이 글은 變動換率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한 작은 規模의 開放經濟에서 거시경제학의 一般均衡 體系가 어떻게 樹立될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技術發展의 經濟的 效果는 어떠한 것인가를 分析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 글은 논리의 단순화를 위해서 變動換率制度和 단기 均衡理論 등을 基本 가정으로 하고 있어서 거시경제이론이 다루야 할 많은 內容이 除外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點은 理論體系의 擴大를 통해서 얼마든지 補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의 目的을 거시경제학의 基本理論을 理解하고 이를 거시경제정책의 效果分析에 適容하려는 데에 한정 시킨다면, 이 글은 經濟學 기초지식을 가진 學生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閔俊植, 巨視經濟學의 새課題, 裕豐出版社, 1983.
2. 朴貞雲, 「一般均衡理論과 巨視經濟政策」, 經營論叢 第4輯, 檀國大 經營大學院, 1984.12.
3. , 「一般均衡理論과 스태그플레이션」, 芝圃 閔俊植博士 畢甲記念論文集, 1985.
4. 鄭雲叔, 巨視經濟論, 茶山出版社, 1985 (改轄版).
5. Branson, W., Macroeconomic Theory and Policy, 2nded., Harper & Row, Publishers, 1979.
6. Branson, W. and Litvack, J., macroeconomics, 2nd ed., Harper & Row, Publishers, 1981.
7. Frisch, H., Theories of Inf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3 低는 가고 3 高 오는가



豫測不許의 狀況

86년도에 12.5%의 GNP 성장률과 86억달러의 經常收支 黒字원년을 기록했던 3低시대의 빛나는 成果는 드디어 退潮하고 말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問題로 不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韓國經濟는 3低의 不確實, 強化되는 貿易摩擦, 擴散되는 노사분규 등으로 專門家들조차 豫測하기 힘든 어려운 狀況에 놓여 있다.

적신호는 經濟의 여러 分野에서 이미 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분규로 休業이나 操業 단축이 擴散·長期化되고 임금이 추가로 5~6%포인트 상승하면, 87년 후반기의 實質 GNP 성장률은 예상치 9.9%에서 5.8%로 둔화하고 經常收支는 34억달러에서 9억달러로 減少하고, 消費者物價는 2.5%에서 4.2%로 上昇하며, 실업자數는 60만명에서 84만명으로 增加할 것이 라고 한다. 여기에다 政策意志가 키를 쥐고 있는 所得分配는 노사분규로 성장기반이 흔들릴 경우 別로 改善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볼 때, 韓國經濟는 지금 거시경제정책의 다섯가지 目標인 成長·物價·雇傭·國際收支·所得分配 面에서 모두 심각한 問題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問題들은 결국 對外經濟與件, 經濟政策, 企業家の 노력, 勤勞者의 자세 등에 의해서 解決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韓國經濟의 現實을 진단하는 것도 결코 無意味한 일은 아닐 것이다.

不況 밀어낸 '幸運의 女神'

80年初만 해도 韓國經濟는 심각한 不況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新規大卒勤勞者들은 일자리 얻기가 힘들었고, 中년 勤勞者들은 失業의 와중에 무더기로 쫓겨쳐졌다. 뿐만 아니라 20여년 동안 輸出주도형 成長政策을 推進해 왔던 韓國經濟는 더 이상 輸出伸張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貿易摩擦은 심화되고 對外 經濟 與件은 不利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86년 中半期에 이르러 韓國經濟는 힘찬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고 86년 말에는 80년대를 통해서 가장 높은 12.5%라는 GNP 成長率을 記錄하게 되었다. 86년초의 음산한 經濟靄圍氣를 회고할 때, 86년의 經濟 成長은 실로 경이적 이라고 말할 수 있다.

韓國經濟는 확실히 行운이 뒤따라 준다. 韓國經濟가 눈깜짝할 사이에 不況에서 好況으로 급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3低라는 行운의 여신이 예기치 않게 韓國을 방문 값진 선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低油價, 美달러貨의 弱勢, 그리고 國際金利의 下落으로 表現되는 3低現象이 없었다면 韓國經濟는 결코 不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를 보다 具體的으로 살펴 보자.

86년 1월 以後 OPEC國家들의 市場擴大政策은 原油가를 85년말의 배럴당 26달러에서 7월에는 무려 7달러까지 暴落 시켰다. 그후 原油가는 점점 회복하기 시작하여 86年 末에는 19달러 선을 유지했다. 原油가의 이같은 下落은 85년에 비해 86년 한해 동안, 國內 需要增加를 감안한다 해도 原油도입에 支出되는 外貨를 무려 22억달러나 減少시켰다. 이 결과는 두말할 必要없이 國際收支 黑字에 반영되었다.

國際金利의 基準으로 使用되는 美國의 優待金利는 80년 下半期에 21.75%까지 上昇해 있었으나 82년에는 11.5%, 그후 계속해서 下落, 86년에

는 평균 7.5%로維持되었다. 이같은 現象은, 日本·英國·西獨 등에서
마찬가지였다. 日本의 경우, 단기 프라임 레이트는 82년의 6.0%에서 持
續적으로 下落, 86년에는 3.75%가 되었으며, 유러금리의 경우, 80年 末
에는 18.00~18.13%였으나 작년 8月에는 3분의 1 水準인 5.56~
5.69%가 되었다.

國際金利 水準은 世界經濟 動向 뿐만 아니라 韓國의 國際收支에도 直接
的인 影響을 미쳤다. 약 4百億달러에 이르는 韓國의 外債 가운데 65%
가 變動金利附 外債이므로 金利가 1%포인트만 下落해도 對外利子支給은
2億8千萬달러나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美國의 優待金利가 85년에 비해
86년에 2%포인트, 日本의 長·短期 프라임 레이트도 2%포인트 정도 下
落했으므로 86년 한 해 동안 韓國의 外債負擔이 얼마나 減少했는가는 어
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이 결과도 물론 國際收支 黑字에 反映되었다.

美달러貨 弱勢의 혼풍

여기에다 美달러貨의 弱勢는 韓國經濟의 成長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美國은 最近 몇 년 동안 繼續해서 擴大되어온 貿易赤字를 縮小하기 위해 달러화 下落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원貨는 85年 末의 1달러당 890.2 원에서 86年에는 861.4 원으로 平價 절상되었다. 外國貨幣에 대한 美달러貨의 弱勢는 日本·西獨·프랑스·대만 등에도 예외 없이 適用되었다. 엔화의 경우에는, 85年 末 1달러당 200.6 엔이던 가치가 86년에는 160.1 엔으로 평가 절상되었다.

그런데 美달러貨의 弱勢는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韓國經濟에 肯定的인 效果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우선 美달러貨 價値가 약화되면 美國의 輸入商品價格은 上昇하게 되어 美國 消費者들은 外國으로부터의 輸入을 減少시키고, 반면 美國의 輸出商品價格은 下落하게 되어 外國 消費者들은 美國으로부터의 輸入을 增加시킬 것이다. 이 結果로 美國의 貿易赤字는 縮小될 것으로 보고 美國은 美달러화 價値의 약화를 政策으로 採擇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美달러화 價値의 下落은 韓國經濟에 전혀 뜻밖의 好材를 가져다 주었다. 美달러貨 價値의 下落은 원貨 뿐만 아니라 엔화의 가치도 절상시켰고 원화에 비해 엔화의 평가절상 폭을 더욱 크게 해준 것이다. 따라서 美달러貨 價値가 下落한 後에 美國 消費者들은 日本 商品보다는 相對적으로 더 싸진 韓國 商品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86年 한 해 동안 美國 市場에서 韓國產 자동차·전자제품·신발류 등이 특히 잘 팔리게 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자동차의 나라 美國에 자동차를 處女 輸出한 해에 現代는 目標量을 50%나 초과한 15만대 가량을 팔 수 있었다. 물론 現代의 '엑셀'이 주행중 燃料가 가장 적게

드는 차로 公認되어 자동차의 나라 美國에서 86년도 世界 10大 자동차의 하나로 選定될 만큼 品質 面에서도 世界的인 水準에 도달해 있었다는 點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美달러貨의 下落은 韓國의 對美輸出을 85년에 비해 86년에는 29%나 증가시켰고 그 액수는 1百39億달러나 되게 했다. 반면 美달러貨의 下落에도 불구하고 韓國은 86년에 美國으로부터 前年度에 비해 1%가 增加한 65億달러 정도를 輸入했다. 이 점은 韓美貿易摩擦에 있어서 重要的 爭點으로 부각되었다. 어쨌든 韓國은 86년 한해 동안 美國으로부터 73億달러에 이르는 貿易黑字를 記錄, 심각한 貿易摩擦을 불러일으키면서 黑字元年을 樹立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外債 콤플렉스 탈피

그러나 美달러貨 弱勢가 韓國經濟에 肯定的인 效果만을 가져온 것은 결코 아니다. 美달러貨 弱勢는 엔화의 價値를 上昇시켜 엔高時代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85年 末 1백엔에 374.6 원하던 換率은 87年 9月 7日 1백엔에 568.56 원이 되어 엔高의 실상이 어떠했는가는 쉽게 理解할 수 있다. 엔화에 대한 元貨 價値의 下落으로 韓國은 日本에 輸出을 增加시키고 반면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을 減少시킬 수 있게 되었지만, 兩國間의 貿易構造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86年 한해 동안 韓國은 日本에 前年度에 비해 19.4%가 增加한 54億 달러를 輸出했으나 日本으로부터는 오히려 43.8%가 增加한 1百億 달러를 輸入했다. 따라서 對日 貿易赤字는 86年에 54億달러에 이르렀고 85年에 비해 무려 24億달러나 增加했다. 결국 美國에서 벌어들인 貿易黑字 74억 달러 가운데서 78%에 해당하는 54億달러는 日本에 고스란히 바쳐버린 결과가 되었다.

對日 貿易赤字의 擴大는 韓國의 産業構造나 貿易構造 개편에 관해서 重要な 示唆點을 던져준다. 韓國이 對美輸出 等 經濟的 호황에 힘입어 經濟成長을 推進할수록 原料재·부품·투자재 등을 日本으로부터 더 많이 輸入하지 않으면 안되는 韓國의 産業構造는 하루 빨리 改編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든 예기치 않은 3低의 도래로 韓國經濟는 86年度에 80年代를 통해 가장 높은 實質 GNP成長率 12.5%, 85學年度의 2.5%보다 더 낮은 消費者物價 上昇率 2.3%, 역시 85學年度의 4.0%보다 더 낮은 失業率 3.8%, 貿易黑字 54億달러를 記錄함으로써 黑字元年을 樹立, 거시경제정책의 主要 目標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評價된다. 무엇보다도 貿易黑字의 結果로 85年 末 4百 68億달러에 이른 外債가 지금은 約 3百 90億 달러로 減少, 韓國이 드디어 外債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點은 높게 評價해야 할 것이다.

油價 20 달러 線 維持

韓國經濟의 座標는 現在 不分明한 狀態이다. 3低라는 幸運의 女神이 아직도 韓國 땅을 떠나지 않고 있기는 하나, 韓國經濟는 對外的으로는 強化되는 貿易摩擦, 對內的으로는 鎮靜되지 않고 있는 勞使紛糾로 인해 큰 危脅을 받고 있다.

우선 3低의 展望은 어떠한가?

原油價는 86年 7月 以後 上昇하기 始作하여 現在는 20 달러 線에서 上昇과 下落을 되풀이 하고 있다. 昨年에 原油價가 上昇하게 된 것은 OPEC가 油價暴落을 야기시켰던 市場占有率 政策을 拋棄하고 다시 산유량 減縮으로 油價回復을 摸索했고 OPEC協定대로 生産쿼터나 固定價格制를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現在는 이란·이라크 戰爭의 激化로 石油供給의 不安定이 油價上昇을 加速化시키고 있으며, 페르시아만에 대한 美·蘇 軍事介入이 石油輸送에 不安을 주고 있어서 油價가 上昇할 可能性이 크다. 그러나 많은 專門機關은 油價가 短期的으로 보아 現在의 20 달러 水準에서 약간의 上昇과 下落勢를 보일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國際金利는 今年 들어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當分間 오름세는 小幅에 그칠 것으로 展望된다. 美國의 優待金利는 今年 4月 1日 以後 多少 上昇, 86年末의 7.5%에서 8.25%로 0.75%포인트 上昇해 있다. 그러나 日本·西獨·프랑스·台灣 등에서는 金利가 86年末 以後 持續적으로 下落해 왔거나 전혀 上昇하지 않은 狀態이다.

그러나 國際金利 變動은 앞으로 美國의 經濟事情에 의해서 크게 左右될 것 같다. 첫째, 인플레이 抑制을 위한 美國의 緊急金融政策은 美國의 金利引上을 不可避하게 하고 있다. 이점은 그린스핀 美聯邦準備制度 理事會 新任 議長이 밝힌 通貨政策의 方向에서 나타난 바 있다.

둘째, 美國의 달러화 價値는 現在 크게 弱化되어 있어 美國은 金利引上을 통해 換率을 維持할 可能性이 크다. 美國은 年 2千億달러의 財政赤字와 年 1千5百億달러의 貿易赤字를 補填하기 위해서 海外로부터의 資金流入이 必要한 實情인데 換率引上은 이를 可能하게 해줄 것이다. 따라서 價値의 弱勢가 美國 貿易赤字의 縮小에 別로 寄與하지 못했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美國은 앞으로 換率維持를 위해서 金利를 引上할 것으로 豫想된다. 세째, 그러나 美國은 來년에 있을 大統領選舉를 對備해서 人氣없는 金融緊縮에 執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金融擴張을 試圖할 것이 豫想되므로 실사 金利가 上昇한다 해도 그것은 소폭에 그칠 可能性이 많다.

成長 持續, 貿易黑字 擴大

美달러화 價値는 지금까지 持續的으로 弱化되고 있다. 원화는 86年 末 1달러當 861.4원 하던 것이 지난 9月 7日에는 806.9원으로 平價切上 되었고 엔화는 86年 末에 1달러當 160.1엔 하던 것이 지난 9月 7日에는 142.0엔으로 역시 平價切上 되었다. 폭의 差異는 있지만 西獨·프랑스·台灣貨의 境遇에도 平價切上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美달러화의 弱勢는, 그것이 貿易赤字 縮小에 그다지 寄與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以上, 金利引上이나 다른 方法을 통해서 當分間 주춤해질 可能性이 크다.

이렇게 볼 때 韓國經濟는 86年과 마찬가지로 當分間 3低效果를 누리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卽 輸出은 增加하고, 成長은 持續되고, 그리고 貿易黑字는 擴大될 것이다. 한 예로 87年 7月 한달동안 經常收支黑字는 무려 11億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3低效果는 두가지 問題와 關聯해서 展望할 必要가 있다. 그 하나는 앞으로 더욱 強化될지 모르는 貿易摩擦과 다른 하나는 美달러화에 대한 日엔화의 切上幅과 對比한 圓화의 切上幅이다.

美國의 財政赤字와 貿易赤字가 深化되어온 理由는 美國의 政策運用이 잘못되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批判받기도 하는데 財政-貿易赤字는 當分間 거대한 規模로 擴大될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美國은 앞으로 달러화의 換率 뿐만 아니라 保護貿易主義 措置의 強化를 통해서도 交易相對國 에게 더욱 심한 壓力을 가해올것 같다.

美國이 綜合貿易法案을 上下 兩院會議에서 最終的으로 通過시키게 될 境遇, 韓國經濟가 美國으로부터 받게 될 打擊이 얼마나 클 것인가는 現在로서는 豫測不許인 實情이다. 政府는 이 問題에 관해서 보다 積極的인 對處方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심각하게 볼 문제는 올해들어 원화는 美달러화와 日엔화 간의 換率變動에 關係없이 빠른 速度로 平價切上되어 왔다는 점이다. 지난 4月 以後 달러화價値는 엔화에 대해서 相當한 幅으로 上昇하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 달러화價値가 上昇하고 엔화價値가 下落하고, 원화價値가 빠른 速度로 平價切上된다면 韓國의 國際競爭力은 크게 弱化될 것 같다. 이로 인해 韓國의 對日貿易赤字는 더욱 惡化될 可能性이 크다.

對外的인 與件과 關聯지을 때 韓國經濟는 對美貿易摩擦을 緩和하고, 원화의 빠른 平價切上을 막고, 對日 貿易赤字를 改善함으로써 當面問題를 解決해 나갈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勞使紛糾의 波長

對內的인 與件은 6.29 宣言 직후부터 擴散되어온 勞使紛糾과 직결된다. 金潤煥 檀國大教授는 그동안에 있었던 勞使紛糾의 主要 內容을 勤勞者들에 의해서 要求된 最低生活保障을 위한 賃金引上, 勤勞條件改善, 經營者들의 權威主義的 姿勢에서 비롯된 非人間的待遇의 是正, 그리고 御用勞組退陣으로 要約한 바 있다.

이 가운데서 賃金引上이 代表的인 主要 內容이었음은 勞使紛糾의 발단이나 妥結過程에서 充分히 밝혀졌다. 現時點에서 勞使紛糾는 아직도 鎮靜과 發生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休業과 操業短縮이 뒤따르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勞使紛糾와 關聯, 賃金引上和 休業이나 操業短縮이 韓國經濟에 미치게 될 效果를 中心으로 論議하기로 한다. 論議의 焦點은 역시 巨視經濟政策의 다섯가지 目標에 맞추기로 한다.

勞使紛糾로 賃金이 引上되고 休業이나 操業短縮이 持續되면 成長은 當然히 鈍化되기 마련이다. 우선 賃金引上은 國際競爭力의 弱化를 가져와 輸出을 減少시키고, 休業이나 操業短縮의 持續은 生産의 減少를 가져와 역시 輸出을 減少시킨다. 게다가 輸出 減少는 國內産業에 生産 減少의 聯關效果를 波及시킨다. 86年度 GDP에 대한 輸出比重은 42.0%, 輸入比重은 39.0%로서 韓國經濟의 貿易依存度は 무려 8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經濟構造에서 勞使紛糾로 輸出이 減少하면 成長이 鈍化될 것은 分明하다. 그러나 賃金이나 協商이 妥結되어 勞使紛糾가 모두 鎮靜될 境遇, 勤勞者의 士氣가 振作되어 生産性은 向上되고 成長은 持續될 수도 있다.

勞使紛糾가 雇傭에 미치게 될 效果는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勞使紛糾는 企業家로 하여금 經營合理化에 拍車를 가하도록 壓力을 주게 되므로 企業家は 自動化를 서두르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技

術的 失業이 發生하게 된다. 둘째, 勞使紛糾로 經濟與件이 不確實하게 되면 企業家は 新規投資를 忌避하게 될 것이고 이 結果로 成長은 鈍化되고 新規採用은 增加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勞使紛糾로 賃金이 上昇하면 雇傭은 減少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때, 勞使紛糾로 인해 失業이 增加할 것은 分명한 事實이고 이는 最近 報道를 통해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바이므로 政府는 서둘러 雇傭擴大政策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勞使紛糾가 國際收支에 미치는 效果는 쉽게 理解할 수 있다. 勞使紛糾로 賃金이 引上되면 國際競爭力이 弱化되고, 休業이나 操業短縮이 持續되면 注文에 應하지 못해 海外市場을 잃게 되므로 輸出은 減少할 것이다. 그러나 賃金協商이 妥結된 후에 勤勞者들이 士氣가 올라 愛社心을 發揮하면 生産性이 向上되어 輸出은 빠르게 增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勞使紛糾가 擴散되는 過程에서, 政府·經總·全經聯·KDI·KIET·其他 企業들이 勞使紛糾로 賃金이 上昇하면 輸出이 減少하여 韓國經濟의 基盤이 흔들릴 것처럼 展望했던 것은 지나친 편견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도 있다.

民主化와의 函數

勞使紛糾는 또 賃金引上을 통해 物價上昇을 가져온다. 賃金費用은 生産費用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論理는 一般的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論理가 반드시 妥當한 것은 아니다. 첫째, 物價上昇은 여러 要因이 복합해서 나타나는 現象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現實적으로, 賃金引上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物價는 原資材 價格上昇, 輸入 價格上昇, 流通構造上的 問題, 期待心理, 過多한 財政支出, 過多한 通貨供給 등에 의해서 上昇할 수 있는 것이므로 物價豫測模型이 얼마나 完璧한가가 重要하다. 흔히 物價豫測模型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賃金引上이 物價上昇을 主導하는 것처럼 오해될 可能性이 많다.

둘째, 韓國 製造業의 賃金水準은 日本의 5分の1, 美國의 7分の1에도 미치지 못하는 實情이므로 賃金引上이 物價上昇을 가져와 國際競爭力을 弱화시킨다는 見解는 반드시 妥當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非인플레이적 賃金引上 理論에 의하면, 賃金이 勞動生産性 增加만큼 引上되면 賃金引上은 物價上昇에 전혀 影響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認定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韓國에서는 政府가 物價上昇을 主導해 왔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 問題는 뒤에 言及하고자 한다.

赤字財政 政策의 危險

勞使紛糾가 所得分配에 미칠 수 있는 效果는 두가지 側面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勞使紛糾로 解雇가 일어나지 않는 狀態에서 賃金이 上昇되면 賃金所得이 增加하여 勤勞者의 所得分配는 向上될 수 있고, 둘째, 賃金引上이 物價上昇을 誘發하면 實質所得은 減少하여 勤勞者의 所得分配는 이전 所得으로 되돌아가 惡化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勞使紛糾로 인해 韓國經濟의 座標가 現在 不分明한 狀態에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民主化의 代價일 뿐이다. 김진현 東亞日報 論說委員長은 最近의 勞使紛糾에 관해서 ‘우리는 民主化의 代價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비싼 民主化의 代價를. 그러나 실로 값있는 대가이기도 하다.’라고 쓰고 있다. 따라서 民主化가 이룩되면 韓國經濟의 對內的인 與件은, 86年에 있었던 3低의 예기치 않던 도래의 경우처럼, 悲觀에서 樂觀으로 急回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伏兵이 韓國經濟의 現實을 不安하게 만들고 있다.

政治가 民主化 기미를 보이자 이에 뒤질세라 經濟·社會·文化 등도 民主化 기치를 높이 치켜세우고 있다. 확실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政治民主化에 걸맞게 政治家들은 與黨, 野黨 할 것 없이 제 철이나 만난 듯 많은 政策들을 提示하고 있다. 이를테면, 獨寡占의 深化로 인한 經濟力 集中의 分散, 中小企業의 活性化, 農漁民 保護, 低賃金 勤勞者를 위한 最低賃金制 實施나 賃金格差 解消, 公正한 分配를 위한 配分的 正義 確立에 必要한 制度의 改善이나 樹立, 地自制 實施 등등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政府는 지금 勞使紛糾로 인한 企業의 被害 保護, 水災民 保護, 選舉 對備, 올림픽의 成功的 推進 등 당장 解決해야 할 問題가 적지 않

다. 政治家들이 여러 階層의 國民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은 ‘더 많은 돈과 새로운 規制와 干涉’을 必要로 하는 것들이다. 3 低時代의 退潮 與否와 關聯하여、韓國 經濟의 現實을 直視할 때, 이러한 問題는 반드시 깊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政治民主化를 契機로 우리는 政府膨脹의 加速化를 境界하지 않으면 안된다. 政府가 膨脹하면 政府失敗가 나타나고 따라서 經濟民主化도 그르치게 된다. 이것은 民主主義 政治體制나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 이미 一般化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 問題는 政府를 構成하고 있는 官僚와 政治家의 實體를 把握함으로써 쉽게 理解할 수 있다. 公共選擇理論에 의하면, 官僚란 昇進이나 權力維持를 위해서 自身の 利益을 極大化하려는 集團이고 政治家는 當選이나 再選을 위해서 역시 自身の 利益을 極大化하려는 集團이라고 規定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可能한 한 豫算을 極大化함으로써 자신들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

숨겨진 課題

政府가 國民을 위해서 어떤 일을 推進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돈이 必要하다. 이 돈은 一般的으로 租稅·內債·外債·通貨를 통해 調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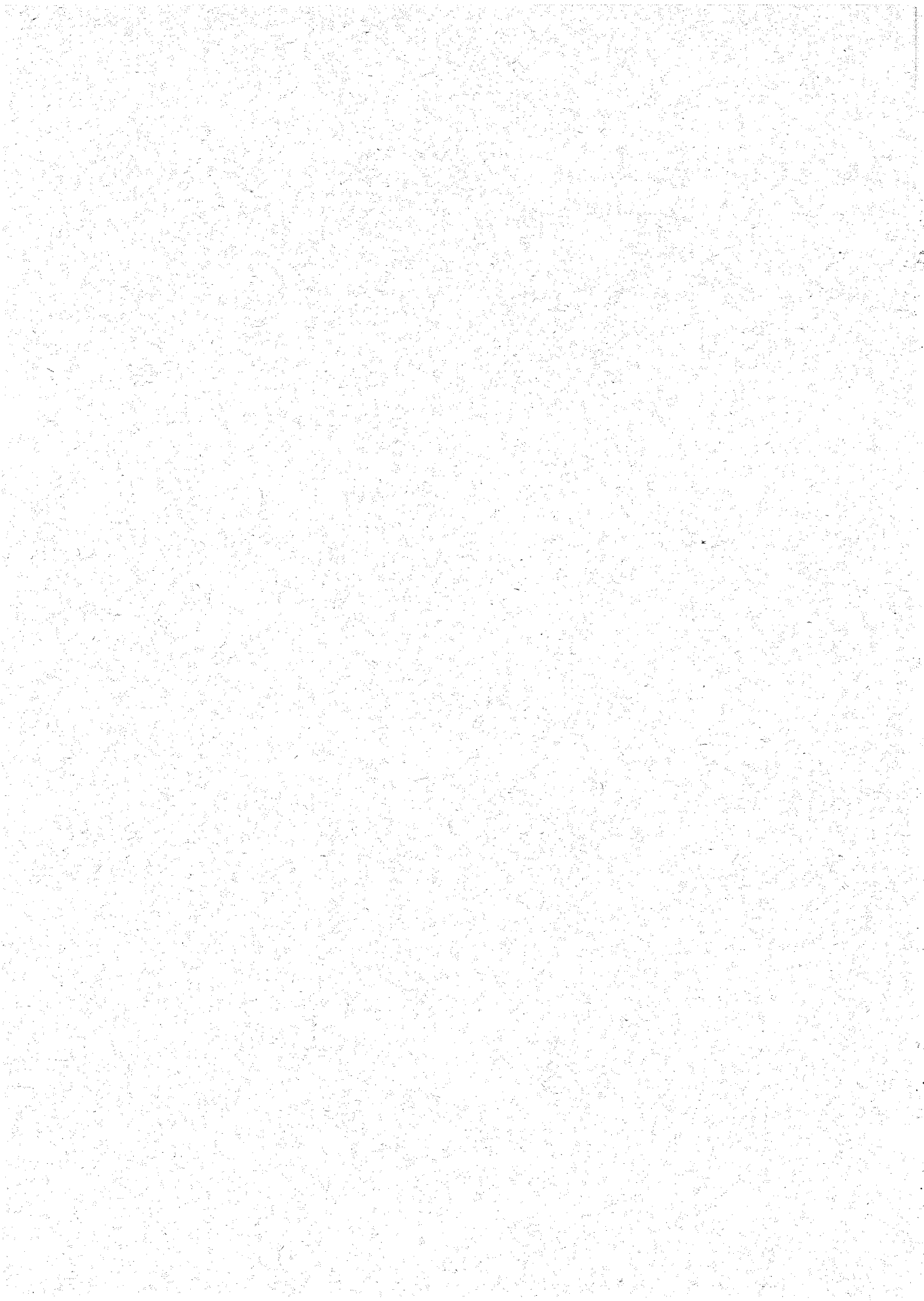
그런데 租稅增加를 통한 財源調達은 政治家들 스스로가 탐탐찮게 여긴다. 그 理由は 그들이 落選의 危險을 무릅쓰고 구태여 投票者들이 싫어하는 租稅增加를 고집할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治家들은 보다 쉽고 危險負擔이 적은 赤字財政政策을 택하게 된다. 이 때 財政赤字는 무엇으로든가 메워져야 하는데 그 무엇이란 바로, 韓國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一般化 되어 있듯이 通貨增加이다. 最近 韓國銀行 行員들에 의한 '韓銀의 中立性 保障이 經濟民主化의 捷徑'이란 宣言도 바로 이러한 脈絡에서 그 意義를 認定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韓國政府가 다반사로 여겨왔다시피, 앞으로 通貨增加를 통해 財政赤字를 보전해 나갈 때, 政府膨脹, 規制와 干涉, 그리고 物價上昇의 加速化는 必然的인 結果로 나타날 것이다. 現在 韓國政府는, 公共部門을 包含시킬 경우, GNP의 35% 程度로서 美國의 水準과 비슷하다. 經濟運用을 위해서는 또 政府가 새로운 規制와 干涉을 내세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70年代 末까지 그러해왔듯이, 政府 스스로가 인플레이션을 誘發할 可能性은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

第5共和國이 出汎當時 物價安定을 經濟政策의 最優先으로 내세우고 그동안 物價安定 面에서는 크게 成功的이었지만 우리는 앞으로 政治民主化를 契機로 政府의 政策運用을 物價上昇과 關聯해서 警戒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政府 스스로가 자초해온 수많은 不支企業과 大型 金融事件은 그만 두더라도, 政府는 이미 勞使紛糾, 中小企業 活性化, 水災民 保護 등의 名分으로 엄청난 돈을 풀었고 年 18%線에서 固守해오던 通貨增加率을 이미 白

紙化시켰다. 또, 내년 豫算을 12.2%로 增加시키는 한편, 80年代 들어와서 現在까지 賃金引上率을 3%線에서 規制해왔으면서 내년도 公務員 俸給 平均 13.6% 引上하겠다고 發表했다. 이러한 처지에서 政府가 勞使紛糾로 인한 賃金引上이 輸出化 成長을 크게 鈍化시킬 것으로 展望하는 것은 지나친 偏見이 아닌가 생각된다.

官僚와 政治家들의 無分別한 經濟運用을 막고, 모처럼 찾아온 經濟民主化를 成功的으로 推進해 나가고, 3低時代의 退潮를 緩和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自明한 일이다.



韓國의 貨金決定과
이와 關聯된 問題들

中國社會主義青年團
團章

I . 序 論

賃金問題가 韓國社會의 中心課題로 登場하기는 80年代 以後부터이다. 韓國經濟가 6,70年代를 통해서 世界에서 가장 높은 成長率을 記錄했으면서도 賃金問題가 社會問題로 擡頭하지 않았던 理由는 政府가 그동안 安保나 成長等의 明分을 내세워 勞動組合의 힘을 사실상 認定해오지 않았고 거기에다 勞動市場마저 超過供給狀態를 維持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가 最近 盧泰愚 民正黨 代表에 의한 「6.29宣言」¹⁾이 發表되자 韓國社會는 순식간에 여러 分野에 걸쳐 民主化 열기로 휩싸이게 되었고 곧이어 賃金 引上을 主要 內容으로 하는 勞使紛糾가 全國적으로 擴散되기 시작했다. 이 렇게 볼 때 1987年은 1962年의 1次5個年 計劃 以後 賃金問題가 社會 問題로 擡頭한 最初の 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重要한 것 은 이를 契機로 앞으로 韓國 勞動市場에서의 賃金決定方法은 過去와는 判 異하게 달라질 것으로 展望된다는 點이다. 賃金은 社會적으로 重要한 意義 를 갖고 있다. 賃金の 意義는 一般적으로 네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勤勞者의 立場에서 볼 때 勞動의 代價로서 所得의 源泉이 되고 둘째, 企業家의 立場에서 볼 때 生産費用의 主從을 이루고 셋째, 隔差를 통 해서 人的資源의 效率的 配分에 寄與하고 넷째, 水準의 높낮이를 통해서 相對的 所得分配 狀態를 決定해준다. 따라서 賃金은 그것이 引上될 경우 勤勞者에게는 有利하게 되나 企業家에게는 不利하게 된다는, 이른바 兩面性 으로 因해서 어느 時代, 어느 體制를 莫論하고 政治, 經濟, 社會의 中心課 題로 登場하곤 했다.

註 1) 1987年 6月 29日 盧泰愚 당시 民正黨 대표가 發表한 것으로 大統領直選制 等 8個項에 걸친 民主化 措置 內容이 包含되어 있다.

이렇듯 社會的으로 重要한 意義를 갖고 있는 賃金問題를 다룬다는 것은 最近 韓國社會에서 澎湃해 있는 民主化 趨勢를 勘案할 때 意義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의 目的은 韓國經濟에서 賃金이 어떻게 決定되어 왔고 賃金과 關聯된 問題는 무엇인가를 分析하려는 데 있다. 序論에 이어 II 章에서는 韓國經濟의 賃金決定原理를 理論的으로 糾明·評價하고 III 章에서는 低賃金, 貸出隔差, 賃金政策, 勞使問題등 賃金과 關聯된 問題를 다룬 다음 IV 章에서는 結論으로서 政策的 示唆點을 提示할 것이다.

II. 韓國經濟와 賃金決定

II章에서는 韓國經濟 運用의 基礎가 되어온 競爭原理를 바탕으로 賃金決定을 理論적으로 밝히고 이와 關聯된 示唆點을 提示할 것이다.

1. 基本前提

韓國에서 賃금이 어떤 原理를 바탕으로 決定되어 왔는가를 理解한다는 것은 賃金政策의 樹立이나 賃金管理의 合理的 運用을 위하여 重要的인 일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賃금은 需要와 供給原理를 바탕으로 하는 市場的 要因과 勞使間의 交渉力을 바탕으로 하는 制度的 要因에 의해서 決定된다. 그런데 韓國에서는 最近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勞組의 힘이 거의 認定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論議를 市場的 要因에다 局限시키기로 한다. 그런데 市場的 要因을 分析對象으로 삼을 때 新古典學派理論이 一般的으로 代表的인 理論으로 使用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新古典學派理論을 基本前提하여 勞動市場에서 賃금이 어떻게 決定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賃金決定

勞動市場에서 規制나 干涉이 전혀 없을 때 賃금은 勞動에 對한 需要와 勞動의 供給 間의 競爭에 의해서 決定된다. 이를 보다 具體적으로 論議하기로 하자.

가. 勞動에 대한 需要

勞動에 대한 需要는 一般 商品의 경우와는 달리 生産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派生需要이다. 만일 商品市場과 勞動市場이 競爭적이고 企業家は 주어진 條件을 바탕으로 利潤을 極大化하려고 한다면 短期에서 企業

의 利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i = P \cdot f(N, \bar{K}) - \bar{W} \cdot N - r \cdot \bar{K} - R$$

(π : 이윤, P : 가격, f : 단기생산함수, N : 노동자수, K : 자본량, r : 단기에
서 그 량이 固定되어 있음을 의미, W : 1인당 명목임금, r : 이자율,
 R : 중간재 구입액)

企業의 利潤은 限界利潤이 零일 때 極大化되므로 利潤極大化의 1次條件은

$$\frac{\Delta \pi}{\Delta N} = 0 = P \cdot f'(N) - \bar{W} \quad (f'(N) : \text{노동의 한계생산성})$$

와 같고 이를 다시 쓰면

$$P \cdot f'(N) = \bar{W}$$

가 된다. 이것은 利潤極大化를 위해서 企業은 勞動의 限界生産物價値만큼
賃金으로 支拂하고 兩者가 같은 데서 勞動에 對한 需要를 決定하게 된다.
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이 바로 新古典學派理論을 바탕으로 하는 限界生産
性理論이다.

이제 만일 어떤 理由로 名目賃金이 許諾한다고 하자. 이 경우 주어진 限
界雇傭에서 勞動의 限界生産物價値는 名目賃金보다 더 크기 때문에 利潤極
大化를 試圖하려는 企業家は 勞動에 對한 需要를 增加시켜 나갈 것이다.
그런데 勞動의 限界生産性은 短期에서 收穫遞減의 法則이 適用되므로 勞動
에 對한 需要가 增加하면 勞動의 限界生産性은 遞減하여 새로운 勞動의
限界生産物價値가 이미 下落한 名目賃金과 다시 같게 되는 데서 勞動에 대
한 새로운 需要가 決定된다. 이렇게 볼 때, 勞動에 對한 需要曲線은 勞動
의 限界生産物價値 自體로부터 誘導되고 收穫遞減의 法則의 適用으로 右下
向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1의 DN 曲線으로 나타나 있다.

이같은 결론은 이미 實證分析을 통해서 그 妥當성이 認定되고 있다. 美國 製造業의 경우에 實質賃金에 대한 短期 勞動의 需要彈力性は 約 -0.3 이고 大部分 先進國의 경우에는 約 -0.2, 그리고 美國 低賃金 勤勞者의 경우에는 約 -1로 나타나 있다.²⁾ 여기에서 -부호는 勞動에 對한 需要曲線이 右下向의이고 數値의 크기는 賃金에 대한 勞動需要彈力性的의 크기를 意味한다.

한편 勞動의 限界生産物價値의 크기를 決定하는 要因은 勤勞者가 生産하는 商品의 價格, 勤勞者가 所有하고 있는 能力이나 努力, 그리고 勤勞者가 使用하는 資源과 技術等の 水準에 따라 決定된다. 예를 들면, 技術水準이 높은 勤勞者의 限界生産物價値는, 다른 條件이 同一한 경우에도, 技術水準이 낮은 勤勞者에 比해서 높기 마련이다. 따라서 勞動의 限界生産物價値가 이의 크기를 決定해주는 어떤 要因의 變化로 因해 增加하게 되면 勞動에 對한 需要도 역시 增加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림 1의 DN曲線의 右側移動으로 表現된다(그림 1에 나타나 있지는 않음).

나. 勞動의 供給

勞動의 供給은 勤勞(또는 勤勞所得)와 餘暇 間의 選擇으로부터 效用을 極大化하려는 勤勞者의 行動으로부터 誘導된다. 이 경우에 餘暇는 正常財라고 假定된다. 이를 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극대화 } u = u(y, l)$$

$$\text{단, } y = w(\bar{l} - l)$$

(u : 효용함수, y : 실질근로소득, l : 여가시간, w : 1인당 실질임금율, \bar{l} : 총이용가능시간)

註 2) D. Hamermesh & A. Lees, The Economics of Work and Pay, 3rd ed. (Harper & Row, Publishers, 1984), PP. 97-98.

우리는 이 式의 效用極大化 條件으로부터 勤勞者가 選擇하는 勤勞時間數를 誘導할 수 있다.³⁾ 즉, 效用極大化는 所得에 對한 餘暇의 限界代替率이 實質賃金率과 같게 될 때 이루어지며 이 條件에서 勤勞時間數가 誘導되는 것이다. 그런데 賃金變化가 일어날 때 餘暇와 勤勞 間의 選擇으로부터 效用을 다시 極大化하려는 勤勞者의 行動에는 두가지의 效果가 作用한다. 그 중 한가지는, 賃金이 上昇할 때 勤勞者의 賃金所得도 增加하므로 勤勞者는 餘暇에 對한 需要를 增加시켜 그 結果로 勞動時間이 減少하게 되는 所得 效果이고, 다른 하나는 賃金이 上昇할 때 餘暇의 機會費用도 上昇하게 되므로 勤勞者는 餘暇에 對한 需要를 減少시켜 그 結果로 勤勞時間이 增加하게 되는 代替效果이다.

註 3) 極大化 $u = u(y, \ell) \dots\dots\dots ①$

단, $y = w(\bar{\ell} - \ell) \dots\dots\dots ②$

①식을 전미분하면 效用極大化 1次條件은,

$$du = 0 = \frac{\partial u}{\partial y} \cdot dy + \frac{\partial u}{\partial \ell} \cdot d\ell \dots\dots ③$$

③식의 右邊左項을 다시 쓰면,

$$du = 0 = \frac{\partial u}{\partial y} \cdot \frac{\alpha y}{\alpha \ell} \cdot d\ell + \frac{\partial u}{\partial \ell} \cdot d\ell \dots\dots ④$$

②식을 전미분하면,

$$dy = -w \cdot d\ell \dots\dots\dots ⑤$$

⑤를 ④식의 右邊左項의 dy 에 대입하면,

$$du = 0 = \frac{\partial u}{\partial y} \cdot (-w) d\ell + \frac{\partial u}{\partial \ell} \cdot d\ell \dots\dots ⑥$$

⑥식의 兩邊을 $d\ell$ 로 나누면,

$$\frac{\alpha u}{\alpha \ell} = 0 = \frac{\partial u}{\partial y} (-w) + \frac{\partial u}{\partial \ell} \dots\dots\dots ⑦$$

⑦식으로부터 效用極大化條件을 다시 쓰면,

$$MRS_{\ell, y} = \frac{MU_{\ell}}{MU_y} = w \dots\dots\dots ⑧$$

⑧식은 勤勞所得과 餘暇 間의 組合을 나타내는 무차별곡선의 賃金率과 接點을 이룰 때 餘暇와 勤勞 間의 選擇으로부터 勤勞者가 效用을 極大化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賃금이 上昇할 때 所得效果가 代替效果보다 더 크면 勤勞時間은 減少하고 그 反對이면 勤勞時間은 增加한다. 따라서 어느 效果가 더 클 것인가는 결국 實證의 問題에 속할 것이다.⁴⁾

한 研究에 의하면, 美國 男子의 경우 賃金에 對한 勞動의 供給彈力性은 零에 가깝거나 女子의 경우에는 正의 값을 갖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⁵⁾ 이같은 結果는 賃금이 上昇할 때 餘暇에 대한 賃의 對替效果가 正의 所得效果보다 더 큰 경우에 나타난다. 따라서 그림으로 나타낼 때 勞動의 供給曲線은 수직에 가깝거나 右下向의인 形態가 된다. 이는 그림 1의 SN 曲線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勞動의 供給을 決定하는 賃金率이 實質賃金率이라고 看做해 왔다. 그러나 物價가 持續적으로 變化하고 있는 경우에는 物價變化가 즉각적으로 把握되는 것이 아니므로 實質賃金率 역시 즉각적으로 把握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勤勞者는 自己가 받은 名目賃金率을 바탕으로 實質賃金率을 豫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爲해서는 物價變化에 關한 情報을 蒐集하여 物價水準을 먼저 豫測하지 않으면 안된다.⁶⁾ 이러한 過程을 거쳐 實質賃金率이 일단 豫測되면 勤勞者가 試圖하는 效用極大化 條件으로부터 勤勞의 供給이 決定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g(N) = w^* = \frac{W}{P^*}$$

註 4) 所得效果가 對替效果보다 더 큰 경우에는 勞動의 供給曲線이 賃金上昇과 關聯해서 後方屈折型을 나타내게 되나 經濟學은 實驗의 學問이 아니므로 이같은 경우는 흔히 分析에서 除外되고 있다.

5) D. Hamermesh & A. Lees, op.cit., P.34.

6) W. Branson, Macroeconomic Theory and Policy, 2nd ed. (Harper & Row, 1979), PP 103-107.

(여기에서 $g(N)$: 實質賃金率을 바탕으로 하는 勞動의 供給函數,

W^* : 豫測實質賃金率, W : 名目賃金率, P^* : 豫測物價水準)

위의 式을 고쳐쓰면,

$$P^* \cdot g(N) = W$$

이 되고, 勞動의 供給은 이제 名目賃金率에 의해서 決定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物價變化에 관한 情報가 즉각적으로 完璧해진다면, 豫測物價水準

P^* 는 實際物價水準 P 와 一致하게 되므로 勞動의 供給函數는 앞에서 論

議한 바와 같이,

$$g(N) = w$$

이 될 것이다.

다. 賃金の 決定

勞動市場이 競爭原理에 의해서 作用한다고 假定하면 이제 賃金은 企業家

에 의해서 決定되는 勞動에 대한 需要와 勤勞者에 의해서 決定되는 勞動

의 供給 間의 競爭에 의해서 決定된다. 지금까지 論議해온 內容을 바탕으

로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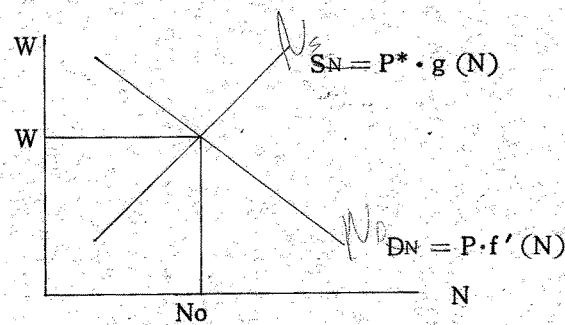


그림 1. 勞動市場

그림에서 DN은 右下向의인 勞動에 對한 需要와 SN은 右上向의인 勞動의 供給 曲線을 나타낸다. 均衡賃金(Wo)과 雇傭(No)는 DN과 SN이 一致하는 데서 決定된다. 이것이 바로 競爭原理를 바탕으로 하는 賃金과 雇傭의 決定原理이다.

3. 賃金決定에 관한 競爭原理 評價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시피 韓國은 競爭原理를 바탕으로 하는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採擇해오고 있다. 勞動市場의 경우에, 그동안에 있었던 行政指導方式의 最低賃金制, 賃金이나 賃貸料等を 規制해온 所得政策, 여러가지 形態의 勞動市場 硬直性등을 勘案한다 해도 韓國의 勞動市場은 競爭原理가 支配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狀態에서는 賃金은 두말할 必要없이 勞動市場에서의 需要와 供給이라는 經濟的 힘에 의해서 決定된다. 다만 韓國經濟에서 大企業 中心의 經濟力集中이 商品市場에서 獨點力을 強化하고 勞動市場에서는 需要獨點力을 強化함으로써 競爭原理가 제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점은 事實 別途로 다뤄야 할 重要的 問題이기도 하다.

어떻든 賃金이 競爭原理에 의해서 決定될 때 그로 인한 長·短點은 무엇인가?

앞에서 잠간 言及한 바와 같이 賃金은 所得分配 狀態를 決定해주는 主要 要因이다. 그런데 經濟體制와 關聯해서 所得分配決定原理를 論議할 때 一般的으로 共產主義는 “結果의 均等原理”를, 그리고 資本主義는 “機會의 均等原理”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의 經濟體制가 大部分의 나라에서 混合主義的 性格을 띄고 있어서 所得分配 決定原理도 역시 混合主義的 性格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經濟體制의 形態

가 어떠한 賃金決定原理은 所得分配 決定에 있어서 重要な 役割을 하게 된다. 이를 보다 構體的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共產主義 經濟體制에서 所得分配 決定은 一般的으로 세가지 原理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必要에 따른 分配, 둘째, 모두가 均等하게 될 것을 目的으로 하는 分配, 그리고 셋째, 勞動時間數에 따른 分配이다. 예를 들면, 政府가 無住宅者에게는 住宅을, 老弱者나 病弱者에게는 醫療서비스를, 國民에게는 無料 教育서비스를, 勞動法에 規定된 勞動時間보다 더 많은 일을 한 勞動者에게는 그에 合當한 賃金을 더 支給하기만 하면 所得分配 決定原理은 제 機能을 다하게 된다. 그런데 이를 爲해서 政府는 勞動動力을 包含한 모든 生産要素를 반드시 公的으로 所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전제 아래, 賃金의 경우, 그 體系를 一元化시켜 職種에 상관없이 모든 勞動者들에게 똑같은 賃金을 支給함으로써 勞動者 間의 所得分配은 結果的으로 均等해질 수 있다.

한편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는 所得分配의 決定이 競爭原理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보면, 最新 技術을 習得한 勤勞者는 單純職 勤勞者보다 競爭에서 더 有利하기 때문에 더 많은 賃金所得을 벌어들이는 것이 許容된다. 이렇게 되면 勤勞者 間의 所得分配은 結果的으로 不均等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資本主義 經濟體制는 이러한 問題를 放置하지는 않는다. 資本主義 國家들은 經濟運用의 基礎가 되는 競爭原理을 活性化시키기 위해서 소위 “機會의 均等”에 必要한 政策들을 實施한다. 거의 모든 資本主義 國家의 경우에 이와 關聯된 基本 政策은 세가지로 나뉘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健康, 教育, 職業訓練등에서 競爭에 必要한 能力을 누구나 똑같이 所有할 수 있도록 無料 醫療서비스나 義務教育 등이 實施되고, 둘째, 死亡時에는 資産의 再分配가 이뤄질 수 있도록 高率의 相續稅制度가 適用되고 셋째, 資源使用이 어느 特定人에게 限定될 수 없도록 獨寡占禁止法등

이 實施되고 있다는 點이다. 이같은 制度가 現實적으로 얼마나 完璧할 것인가는 國家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만일 이같은 制度가 本來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한다고 假定하면, 勤勞者들은 競爭에 있어서 機會를 均等하게 確保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結果의 均等도 保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實은 전혀 그러하지가 않다.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 하나의 代表的인 問題點으로 認定되고 있는 所得分配의 不均等이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그렇다면 機會의 均 등이 保障된다고 해도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所得分配은 왜 均等하지 못하는가?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 所得分配이 均等하지 못한 理由는 一般的으로 세 가지로 說明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勤勞者의 能力은 個個人에 따라 差異가 있으므로 能力의 差異는 賃金隔差, 나아가서는 所得分配 不均等を 가져오고 둘째, 資本主義 經濟體制의 勞動市場은 産業間 職種 間에도 多樣하므로 賃金率의 差異는 賃金隔差나 分配의 不均等を 가져오고 셋째,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는 個人의 選擇의 自由가 許容되므로 勤勞者의 勤勞意欲의 差異는 결국 分配의 不均衡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資本主義 經濟體制에서 賃金隔差나 所得分配의 不均等은 하나의 必要惡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앞에서 言及한 세가지 要因에 依해서 비롯된 不均等한 所得分配은 차라리 公平分配이라고 表現해야 마땅할 것이다. 朴昇教授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가 追求해야 할 바람직한 分配은 平等分配라기보다는 公平分配이며 公平分配은 주어진 與件이 같은 狀況에서 個個人의 能力과 努力으로 생기는 差異만 認定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個個人의 能力과 努力의 結果로 생기는 隔差는 當然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며, 다만 與件의 差異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社會적으로 勘案하고 調整해야

한다는 것이다.”⁷⁾

이렇게 볼 때, 競爭原理을 바탕으로 하는 賃金決定方式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政府가 얼마만큼 모든 勤勞者들을 爲해서 機會를 均等하게 해주고 나아가서 競爭原理을 活性化시킬 수 있느냐 하는 點만이 問題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점은 現在 韓國의 經濟政策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로서 역시 別途로 다뤄져야 할 重要한 性質의 것이다.

註 7) 朴昇, 바람직한 所得分配은 어떤 것인가, 「展望」, 1987年 2月號, PP.4~18.
(社會發展研究所, 1987.2)

Ⅲ. 韓國經濟와 賃金問題

여기에서는 앞에서 論議한 競爭的 賃金決定原理와 韓國經濟의 構造的 特性을 바탕으로 韓國經濟가 當面해오고 있는 賃金問題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章의 論議는 韓國經濟의 賃金問題와 關聯해서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다섯 가지 問題, 즉, 다른 나라에 比해서 낮다고 認定되는 平均 賃金水準, 單純職 勤勞者와 低賃金, 賃金隔差, 政府가 推進해온 賃金上昇規制 政策, 그리고 勞使問題등에 焦點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1. 낮은 水準의 平均賃金

韓國의 平均賃金 水準은 다른 나라에 比해서 매우 낮은 水準이다. 平均賃金 水準에 關해서는 便宜上 國民所得 中の 被傭者 報酬 比率과 製造業 賃金所得 比率로 나누어 論議하기로 한다.

韓國의 被傭者報酬 比率은 1965년에 約 31.8% 였는데 1970년에는 39.6%, 1977년에는 約 43.5%로 緩慢한 增加를 보이다가 1982년에는 55.5%를 記錄, 現在는 이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⁸⁾ 그런데 韓國과 같이 高度成長을 記錄한 臺灣의 境遇 被傭者報酬 比率은 1965년에 이미 48.9%, 1980년에 60.4%, 그리고 1985년에는 61.4%를 나타내고 있으며 日本의 境遇에 그것은 1965년에 55.3% 였는데 그 후 持續적으로 增加하여 現在는 約 72% 程度를 上廻하고 있다. 한편 다른 先進國의 境遇에 被傭者報酬 比率은 一般的으로 70%~75%에 이르고 있어 韓國의 水準이 얼마나 낮은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⁹⁾

註 8) 한국은행이 國民所得計定을 新 SNA 方法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자료에 따라 時系列上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9) 朴東雲, 金愛實, 韓國經濟와 勞動所得分配率의 變化

韓國에서 製造業 附加價值 中 賃金所得 比率은 역시 다른 나라에 比해서 낮은 水準이다. 韓國 製造業의 賃金所得 比率은 1963年의 25.6%에서 약간의 起伏은 있지만 一般的으로 60年代 後半과 70年代 前半의 高度成長 期間을 通해서 減少趨勢를 보이다가 1973年에는 가장 낮은 22.5%를 記錄, 그後 增加해 오다가 1979年에는 가장 높은 31.7%를 記錄했으나 다시 減少趨勢를 보이다가 1985年에는 27.1%로 나타나 있다. 大部分의 나라에서 製造業 賃金所得 比率은 35% 以上에 이르고 있다는 點을 勘案할 때 韓國의 水準은 역시 相對的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國民所得 中の 被傭者報酬 比率과 製造業 附加價值 中の 賃金所得 比率이 낮은 理由는 무엇 때문인가? 그 理由는 두가지로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理由는 韓國의 雇傭構造가 아직도 高度化되어 있지 않아 勞動市場이 全般的으로 超過供給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低賃金 勤勞者의 勞動市場은 이에 關한 實狀을 端的으로 說明해주고 있다. 勞動市場이 超過供給狀態를 維持하고 있을 때는 高度成長의 結果로 勞動에 對한 需要가 빠르게 增加한다 할지라도 賃金增加는 별로 期待할 수 없다. 둘째 理由는, 첫째 理由와 直接 關聯이 되는 것으로, 韓國의 賃金水準이 根本的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要因은 賃金政策의 實施에 있어서 반드시 考慮의 對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낮은 賃金水準은 80年代 以後 政府가 所得政策의 次元에서 推進해온 賃金引上規制 政策과 關聯해서 評價 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 이 問題는 곧 이어서 다루게 될 것이다.

韓國의 賃金水準이 다른 나라에 比해서 얼마나 낮은가를 製造業의 時間當 賃金率을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表1은 韓國과 關係가 많은 先進國, 그리고 韓國과 條件이 비슷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時間當 賃金を 美달러貨로 換算하여 比較한 것이다. 이 表에 依하면, 1984年 韓國 製造業의 時間當 賃金은 美貨 1.26달러로서 比較 對象國 가운데서 가장 낮

〈表 1〉 製造業의 時間當 賃金의 年度別 國際比較 (美貨 달러 換算)*

(單位:美貨 달러, %)

年 度	韓 國	臺 灣	홍 콩	싱가포르	日 本	美 國
1971	0.20 (100)	0.23 (115)	0.39 (195)	0.92 (460)	1.23 (625)	3.57 (1,785)
1975	0.36 (100)	0.48 (133)	0.58 (161)	1.46 (406)	3.29 (914)	4.83 (1,342)
1979	1.09 (100)	0.95 (87)	0.99 (91)	1.89 (170)	5.84 (536)	6.70 (615)
1982	1.16 (100)	1.43 (123)	1.58 (136)	2.73 (235)	6.12 (528)	8.50 (733)
1984	1.26 (100)	1.54 (122)	1.54 (122)	3.32 (263)	6.91 (548)	7.18 (729)
年平均 增加率 (71~84)	15.2	15.8	11.1	10.4	14.2	7.5

資料: ILO. Year Book of Labor Statistics 1985.

ROC.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5.

* 이 表는 朴世逸, 雇傭, 賃金 및 勞使關係, 「韓國經濟의 理解」(比峰出版社, 1987. 2), p.219에서 引用한 것임.

은 水準이다. 臺灣과 香港은 韓國의 約 1.22倍, 싱가포르는 約 2.63倍이고 日本과 美國은 各各 5.48倍와 7.28倍를 보여주고 있다.

韓國의 賃金水準이 다른 나라에 比해서 매우 낮다는 事實은 勞動生産性에서 큰 差異가 없는 限 賃金上昇이 國際 競爭力의 弱화를 가져오리라는 見解와 物價安定을 爲해 賃金引上規制가 必要하다는 政府의 政策에 對해 하나의 批判的 根據를 마련해 줄 수 있다.

2. 未熟練 勤勞者의 低賃金

韓國에서 未熟練 勤勞者의 賃金과 關聯된 低賃金 問題는 說明이 必要 없을 만큼 심각한 便이다. 表2는 이를 나타내 주고 있다.

〈表 2〉 10人 以上 規模 全産業의 賃金階層別 勤勞者數 (1985年 3月 現在)*

賃金階層	勤勞者總數	男 子	女 子
8萬圓 未滿	31,550(0.92)	10,507(0.05)	21,043(1.76)
10萬圓 未滿	115,402(3.38)	27,953(1.24)	87,449(7.31)
14萬圓 未滿	548,232(16.04)	120,516(5.42)	427,716(35.74)
20萬圓 未滿	1,290,738(37.76)	384,060(17.29)	906,678(75.75)
30萬圓 未滿	2,076,373(60.74)	970,135(43.67)	1,106,238(92.43)
50萬圓 未滿	2,933,970(85.97)	1,759,937(79.22)	1,178,983(98.51)
80萬圓 未滿	3,278,072(95.89)	2,085,527(93.87)	1,192,545(99.64)
80萬圓 以上	140,491(4.11)	136,165(6.13)	4,326(0.36)
計	3,418,563(100)	2,221,692(100)	1,196,871(100)

資料：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查報告書』, 1985.

* 表 1의 朴世逸 參照, p.214.

이 表에 依하면, 1985年 3月 現在 月 8萬圓 未滿 勤勞者數는 約 3萬 2千名으로 全體 勤勞者의 0.9%를 차지하고 있고, 月 10萬圓 未滿은 11萬 5千名으로 全體의 3.4%에 이르고 있으며 이 中 女子의 數는 男子보다 約 3倍나 더 많다. 特히 1985年 現在 全都市 勤勞者 家口當 月 平均 支出은 621,083원, 이 中 衣食住등 基本需要에 支出된 平均 金額은 309,157원 이었는데,¹⁰⁾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月 14萬圓 未滿의 勤勞者數는 모두 全體의 20.04%나 되고 있으며 이 中 女子는 77.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韓國의 低賃金問題는 심각하며 이들 勤勞者의 75% 程度는 女子라고 볼 수 있다.

韓國社會가 안고 있는 이같이 심각한 低賃金問題를 解消하기 爲해서 社

註10) 朴世逸, 前揭書, p.214.

會 一角에서는 그동안 最低賃金制 實施가 진지하게 論議되어 왔고 政府도 1985 年에 行政指導方式을 導入하기 始作하면서부터 이의 實施를 肯定的으로 받아들였으며 1988 年부터는 本格的인 實施計劃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이와 關聯해서 많은 사람들은 最低賃金制가 實施될 境遇 低賃金問題가 解消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그러나 最低賃金制 實施가 가져오게 될 結果는 결코 疎忽하게 다룰 性質의 것이 아니다.¹¹⁾ 社會倫理的인 側面에서 볼 때 低賃金解消를 爲해서는 最低賃金制 實施 以外の 다른 代案이 없다는 點에서 最低賃金制 實施가 當然한 것으로 받아드러지고 있으나 經濟的인 側面에서 볼 때 그것은 失業의 增加라고 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結果를 가져오게 되어 最低賃金制 實施는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論爭의 對象이 되고 있다.

最低賃金制 實施의 經濟的 效果에 關한 經濟學者들의 研究結果는 大略 다음의 세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한 經濟에 失業의 增加를 가져오고 둘째, 解雇되지 않은 勤勞者의 賃金은 上昇시켜 주지만 이는 解雇된 勤勞者의 賃金喪失의 代價로 이루어지고 셋째, 賃金上昇으로 因해 企業家로 하여금 社內訓練이나 職業訓練등에 對한 投資意慾을 잃게 함으로써 未熟練 勤勞者의 將來所得의 增加를 阻害한다는 點이다. 經濟學者들의 이같은 研究結果는 이미 一般화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經濟的인 側面에서 最低賃金制 實施는 반드시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最低賃金制 實施와 關聯해서 우리는 韓國經濟에서 왜 低賃金이 存續하게 되었는가를 알아 볼 必要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低賃金의 存

註11) 最低賃金制에 關한 包括的인 論議를 爲해서는 朴東雲, 李重熙, 「最低賃金制」(우야당, 1985.4)를 參考할 것.

續 理由에 對해서 韓國政府가 그동안 先分配 後成長보다는 先成長 後分配 政策에 더 力點을 두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한 例로서 그들은 最低賃金制 實施와 같은 賃金政策의 不在를 내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指摘은 事實上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低賃金の 存續은 根本的으로 韓國經濟의 構造的 脆弱性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爲해서 韓國經濟의 構造變化를 雇傭面에서 살펴 보기로 하자.

1963年度 韓國의 產業別 雇傭構造는 農林漁業이 全體의 63.1%, 鑛工業이 8.7%, 그리고 社會間接資本이 28.2%를 차지하고 있어 韓國經濟가 傳統的인 農業國家의 範疇에 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5餘年の 高度成長은 韓國經濟의 雇傭構造를 크게 變化시켜 주었다. 1986年 韓國의 產業別 雇傭構造는 農林漁業이 23.6%, 鑛工業이 25.9%, 그리고 社會間接資本이 50.5%로서 1963年과는 判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韓國經濟의 鑛工業의 높은 雇傭構成比는, 先進國 經濟發展과 定義 歷史的 教訓에 비추어 볼 때, 工業化 또는 產業化가 짧은期間 동안에 成功的으로 이루어졌으며, 社會間接資本의 높은 構成比는 소위 서비스 中心의 雇傭構造로 改編되어가는 先進國型 雇傭構造 方向으로 發展되어 오고 있다는 點을 示唆해준다. 事實 1963年 以後 製造業의 年平均 雇傭增加率은 8.5% 程度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製造業이나 社會間接資本의 發展은 韓國의 剩餘 勞動力을 充分하게 吸收하지는 못했다. 그 證據로는 雇傭增加는 經濟全般에 걸쳐 빨랐음에도 不拘하고 賃金增加는 緩慢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勿論 80年代에 들어와 政府가 物價安定을 目標로 賃金引上을 規制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特히 技能이나 技術 水準이 높지 않는 單純勞務職 勤勞者의 境遇에 賃金上昇이 낮아 低賃金 問題가 存續하게 된 가장 큰 理由는 이 部門의 勞動力이 持續的으로 超過狀態를 維持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이렇다 할 賃金政策이 없는 境遇에 勞動力의 超過供給 狀態는 賃金變動 趨勢를 反映한다. 韓國 製造業의 境遇, 部門別 人力不足 現象이 나타났던 70年代 末과 不況期였던 80年代 初를 除外하고 實質賃金 增加는 勞動生 産性 增加에 미치지 못했다. 持續的인 高度成長에도 不拘하고 韓國經濟에 서 低賃金이 存續했던 理由는 이와같이 勞動市場의 構造的 特徵에서 찾아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實情에서 低賃金解消를 爲해 最低賃金制를 實施하게 된다면 失業 增加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結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最低 賃金制 實施가 社會倫理的인 面에서 不可避하다 할지라도 失業增加를 막을 수 있는 다른 補完策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政府는 低賃金 勤勞者들을 對象으로 그들의 生産性을 向上시킬 수 있는 職業訓練을 擴大 實施할 必要가 있다. 例를 들면, 政府가 低賃金 勤勞者들이 많이 居住하고 있는 工團地域에 여러가지 種類的 職業 學校를 세워 運營하거나 稅制上的 惠澤을 주어 企業들로 하여금 그러한 學校를 세워 運營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 줄 必要가 있다. 둘째, 政府가 特別 히 低賃金 勤勞者들을 爲해서 就業 情報센터를 設立하여 運營함으로써 勞 動市場의 情報 需給을 活性化 시키는 일이다. 低賃金 勤勞者들은 一般的 으로 情報의 習得과 活用に 能熟하지 않으므로 勞動市場의 情報 活性化는 低賃金 解消나 賃金隔差 解消에 큰 寄與를 할 수 있을 것이다. 政府는 最近 高學歷 勤勞者들을 對象으로 就業情報센터를 運營해 나가고 있지만 實際로 就業情報를 必要로 하는 階層은 低賃金 勤勞者이다. 셋째, 最低賃 金制 實施의 代案이나 補完策으로서 賃金補助政策 實施가 바람직스럽다는 點을 強調해 둔다.¹²⁾ 最低賃金制 實施는 企業家の 몫을 減少시켜 勤勞者의

註12) 朴東雲, 低賃金解消와 雇傭擴大政策—最低賃金制 代案으로서의 賃金補助政策, 「産業研究」 第九輯(檀國大, 産業研究所, 1986).

몹을 증가시켜주는 役割을 하고 이 過程에서 解雇가 發生하여 失業이 增加하지만 賃金補助政策의 實施는 政府가 企業家의 賃金費用을 減少시켜 줌으로써 勤勞者의 몹을 增加시키고 이 過程에서 勞動力 吸收도 促進시키는 役割을 하게 된다. 勞動力 吸收가 低賃金解消에 先決條件이라는 點을 勘案할 때 賃金補助政策의 妥當性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賃金補助政策 實施에 必要한 財源確保는 다른 次元에서 研究해 볼 問題이다.

3. 賃金隔差

賃金隔差는 學歷別, 性別, 職種別, 規模別 등으로 나눠 살펴 볼 수 있다. 最近 韓國의 賃金隔差는 그 深刻性으로 因해 社會的인 問題로 부각되어 있는 실정이다. 韓國의 賃金隔差의 實狀은 表 3에 나타나 있다.

〈表 3〉 賃金隔差의 狀況 (1985) (單位 : 萬원)

	月 平 均 賃 金	指 數
〈學歷別〉 大 卒	68.6	(304)
	39.3	(174)
	30.3	(134)
	22.6	(100)
〈性 別〉 男 子	38.6	(214)
	18.0	(100)
〈職種別〉 專 門 技 術	55.3	(234)
	80.4	(341)
	36.3	(154)
	32.2	(137)
	23.5	(100)
〈規模別〉 生 產 職	23.6	(100)
	29.5	(100)
	30.3	(103)
	30.9	(105)
	32.8	(111)
V (500~)	33.2	(113)

資料 : 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調查報告書』, 1985.

* 〈表 1〉의 朴世逸 參照, p.221.

優先 韓國의 性別 賃金隔差는, 85年 現在 男性이 女性보다 2.14倍 程度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미 全世界的으로도 一般化되어 있는 現象이다. 韓國의 境遇에는 女性이 賃金 뿐만아니라 昇進이나 業務配置等 非賃金 面에서도 甚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는데 이는 事實상 非經濟的인 側面과 더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性別 賃金隔差를 더 以上 論議하지 않기로 한다.

韓國의 學歷別, 職種別 賃金隔差는 確實히 심각한 便이다. 月平均 賃金으로 比較할 때 85年 現在 中卒賃金を 100으로 하면 高卒은 134, 專門大卒은 174, 大卒은 304로서 韓國의 學歷別 賃金隔差는 다른 나라에 比較해서 深刻하다. 예를 들면, 韓國의 大卒 平均賃金은 高卒의 2.3倍인데 比較해 日本은 1.4倍, 臺灣은 1.3倍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初賃의 境遇에도 隔差는 심하다. 한편 職種別 賃金隔差는 生産職을 100으로 볼 때, 事務職은 154, 專門技術職은 234, 行政管理職은 341로서 學歷別 賃金隔差와 마찬가지로 深刻한 便이다.

學歷別 賃金隔差를 解消하기 爲해 政府는 이미 몇가지 構想을 세워 놓고 있다. 이를테면, 「6.29宣言」以後 政府는 教育改革의 次元에서 잘못된 教育風土와 教育觀을 바로 잡기 爲한 先決課題로서 지나친 賃金隔差를 大幅 좁혀 나갈 計劃을 發表한 바 있다. 이 計劃에 따르면, 85年 現在, 中卒을 100으로 볼 때 高卒 114, 大卒 172로 되어 있는 賃金隔差를 90年代 初盤에는 中卒을 100으로 볼 때, 高卒 112, 大卒 139로 좁혀갈 計劃이다.

學歷別 賃金隔差 解消를 爲한 이같은 措置의 繼續된 發表는 이 問題가 韓國社會에서 얼마나 深刻한 것인가를 端的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韓國에서 賃金隔差가 甚한 理由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둘 必要가 있다. 朴世逸 教授는 그 理由를 첫째, 業務遂行 能力과 直接 關聯이 되지 않는

境遇에도 使用者들은 高學歷을 採用基準으로 要求하는 雇傭慣行을 固守해 오고 있고 둘째, 學歷 그 自體가 採用決定 뿐만 아니라 獨自인 賃金決定 要因으로도 作用하는 賃金慣行을 固守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學歷別 賃金隔差를 解消하기 爲해서는 使用者 自身들이 먼저 韓國 社會를 오래동안 支配해 온 이같은 雇傭慣行과 賃金慣行을 打破해야 할 必要가 있음은 더 以上 說明이 必要하지 않다. 그러나 政府가 一定 比率을 導入하여 學歷別 賃金隔差를 解消하려는 方法은 非判의 餘地를 남겨 준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學歷別 賃金隔差를 解消하기 爲해서 日本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比率을 導入하여 韓國에 適用하려 한다면 그것은 日本의 勞動市場構造가 韓國의 境遇와 같다는 前提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妥當하지가 않다. 日本은 이미 雇傭構造가 高度化되어 있는 先進國이므로 賃金隔差는 合理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韓國은 그러하지가 않다. 둘째, 初賃과 關聯해서 賃金隔差를 解消하기 爲해서 高卒 4, 5年の 經歷者와 大卒 初賃을 같게 만든다면, 人的資源配分の 效率性を 沮害할 可能性이 많다. 뿐만 아니라 高卒學歷者의 勞動市場이 얼마나 高度化되어 있는가 하는 問題도 提起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같은 方法 역시 合理的일 수 없다. 셋째, 一定한 比率을 導入하여 賃金隔差를 解消하려 하면 자칫 高學歷 勤勞者의 賃金上昇을 規制하게 될 可能性이 많다. 競爭原理를 바탕으로 賃금이 決定되면 財務構造가 良好한 企業은 보다 많은 賃金を 支拂함으로써 다른 企業의 賃金上昇을 先導할 수 있게 될 것이나 一定比率의 導入은 그러한 企業의 賃金上昇을 오히려 規制하게 될 可能性이 있다. 넷째, 一定 比率의 導入을 바탕으로 하는 賃金隔差

註13) 朴世逸, 前掲書, pp. 220-232.

解消는 低學歷 勤勞者의 勞動力 吸收을 沮害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學歷別, 職種別 賃金隔差를 解消하기 爲해서는 政府가 使用者들로 하여금 雇傭과 賃金慣行을 自發的으로 撤廢할 수 있도록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가는 한便 賃金決定과 關聯된 競爭原理의 活性化를 爲해서 勞動力 吸收에 拍車를 加하면서 職業訓練, 技術教育, 產學協同體制의 確立等을 圖謀해야 할 것이다.

4. 賃金引上 規制政策

政府는 80年代에 들어와 賃金 引上率을 每年 3% 程度에서 抑制해 오다가 6.29 民主化措置 以後에는 89年度 公務員 賃金 引上率을 13.6%로 決定·發表했다. 그동안에 있었던 政府의 賃金引上 規制政策은 物價安定이나 國際競爭力 強化를 目的으로 하는 所得政策의 次元에서는 그 妥當性을 一貫 理解할만 하다. 그러나 韓國의 賃金 水準이 다른 나라에 比해서 顯著하게 낮고 賃金規制 政策으로 因해 實質賃金 增加가 勞動生産性 增加에 미치지 못했다는 點에서 政府의 賃金引上 規制政策은 批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賃金引上 規制政策은 그것이 企業家들만 有利하게 해 줬다는 點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優先 理論的인 面에서 實質賃金 增加가 勞動生産性 增加에 미치지 못할 때는 賃金引上은 物價上昇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는, 所謂 “非인플레이의 賃金引上”(noninflationary wage increase)라고 불리운다. 그동안에 있었던 政府의 賃金引上 規制政策은 事實上 非인플레이의 賃金引上의 範圍에서 賃金引上을 抑制해온 것으로 이로 因해 企業家의 賃金費用은 減少해온 反面, 同時에, 勤勞者의 賃金所得 分配는 惡化되어 왔다. 企業家의 賃金費用 比率 또는 勤勞者의 賃金所得 分配率 比率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賃金費用 比率의 變化率 ≡ 賃金所得分配率의 變化率

$$= \text{名目賃金變化率} - \text{物價上昇率} + \text{勞動生産性 增加率}$$

(3%) (3%) (5%)

그동안에 있었던 賃金引上 規制政策에 依하면, 政府가 目標로 내세운 物價上昇率과 名目 賃金引上率은 約 3%였고, 여기에다 經濟 全般에 걸쳐 勞動生産性 增加率은 約 5% 였으므로(위 公式의 괄호안 數值), 결국 賃金費用比率은 5%가 下落한 反面 同時에 賃金所得 分配率도 5%가 下落했다. 80年代 以後의 賃金規制政策이 不斷히 企業家만을 有利하게 하면서 勤勞者는 不利하게 했다는 根據은 바로 위의 數值를 通해서 쉽게 理解할 수 있다.

製造業의 賃金所得 分配率의 變化는 우리에게 매우 興味있는 證據를 보여주고 있다. 80年 以後 製造業의 勞動生産性 增加率은 年平均 5.7% 程度였는데도 賃金引上 規制政策의 結果로 實質 賃金增加는 勞動生産性 增加에 미치지 못해 賃金費用比率(또는 賃金所得 分配率)은 減少해오고 있다. 卽, 賃金費用比率은 79年에 31.7%로서 가장 높았으나 이 比率은 점점 減少하여 85年에는 27.1%로 減少하고 있다.¹⁴⁾

따라서 過去와 같은 賃金規制政策은 企業家만 有利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낮은 賃金水準이 增加할 수 있는 機會마저 앗아가 버리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撤廢되지 않으면 안된다. 特히 過去와 같은 賃金規制政策은 經濟 全般의 平均 賃金에만 適用될 뿐 勞動生産性 增加가 서로 다른 個別 企業에는 差等 適用되지 않았다는 點에서 賃金決定上 不公平 問題까지 惹起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는 賃金決定은 역시 企業에 依해서 自律的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註 14)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 報告書」, 1963, 1966 - 1985.

5. 勞使紛糾와 賃金引上

「6.29宣言」以後 勞使紛糾는 本格的으로 發生하여 瞬息間에 全國的으로 擴散되기 始作했다. 87年 9月末 現在 勞使紛糾는 거의 모두 鎮靜되어 있는 實情이다. 最近의 勞使紛糾 發生 原因에 關해서 金潤煥 教授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主內容은 最低生活 保障을 爲한 賃金引上和 作業環境 改善 經營者의 權威主義的 姿勢에서 비롯된 非人間的 待遇의 是正 御用勞組 退陣으로 要約된다.”¹⁵⁾

그런데 勞使紛糾가 擴散되기 始作하여 그 深刻性이 더해가자 社會의 一角에서는 韓國經濟의 基盤이 흔들릴 것으로 憂慮하는 反面 다른 한 便에서는 避할 수 없는 民主化의 代가로 보기도 했다.

最近의 勞使紛糾는 그 發生이나 鎮靜過程을 통해서 볼 때 賃金引상이 가장 代表的인 이슈였다고 生覺된다. 이렇게 볼 때 最近의 勞使紛糾는 政府의 政策이 잘못 運營되어온 結果라고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韓國의 歷代 政府는 安保 維持라는 名分을 내세워 組勞組合의 結成이나 이미 結成된 勞組의 힘을 事實上 認定해오지 않음으로써 賃金 決定에 있어서 勤勞者의 位置를 弱化시켰던 것이다. 비록 賃金이 自本主義 經濟體制에서는 주로 市場的 要因에 依해서 決定된다 하더라도 賃金 決定에 있어서 勤勞者는 使用者와 對等한 位置에 서기가 쉽지 않으므로 政府는 制度的 要因을 導入하여 勞組를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그동안 賃金 決定에 있어서 制度的 要因이 排除되어 왔기 때문에 民主化의 熱氣는 全國的으로 瞬息間에 勞使紛糾를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註15) 金潤煥, “現勞使問題의 性格과 展望”(檀大新聞, 第761號, 1987年 8月 25日 3面).

다음으로는 韓國이 60年代 以後로 高度成長을 成功的으로 이룩해 왔음에도 不拘하고 成長의 結實은 勤勞者들에게 充分히 돌아가지 않았다고 評價되고 있기 때문에 勞使紛糾는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生覺된다. 이 같은 見解는 現在 韓國社會에서 그 妥當性이 幅넓게 認定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問題는 所得分配政策이나 配分的正義의 確立政策과 더 密接하게 關聯되는 것이어서 여기에서는 더 以上 言及하지 않기로 한다.

앞에서 論議한 바와 같이 賃金이 競爭原理에 依해서 決定된다 할지라도 勞動市場이 超過供給 狀態를 維持하고 있을 때에는 賃金上昇은 별로 期待할 수 없다. 그러나 賃金은 勤勞者 所得의 源泉이 된다는 點을 勘案할 때 賃金決定을 市場的 要因에만 맡겨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 이미 앞에서 充分히 論議했듯이 低賃金, 賃金隔差 等 韓國經濟가 賃金과 關聯해서 當面하고 있는 問題들은 바로 賃金決定이 市場的 要因에만 依存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政府는 적어도 賃金決定에 있어서는 制度的 要因을 導入하여 勞組의 結成이나 그 힘을 認定할 必要가 있다.

最近의 勞使紛糾 經驗을 바탕으로 할 때 앞으로 韓國經濟의 賃金 決定에서는 制度的 要因이 核心的 役割을 하게 되리라고 展望된다.

IV. 結 論

지금까지는 韓國經濟의 賃金決定과 이와 관련된 問題를 論議해 왔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政策方向을 政府와 企業家 側面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政府側面

賃金決定에 대한 직접적인 規制나 介入은 많은 나라의 境遇에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못한 結果를 가져왔다. 물론 最低賃金制의 境遇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勞組의 힘이 莫強한 나라에서 團體協商의 境遇에는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政府는 무엇보다도 競爭原理를 活成化시킬 수 있는 政策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가. 雇傭擴大政策

韓國의 勞動市場에서는 아직도 勞動力의 초과공급 狀態가 維持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狀態에서는 설사 過去와 같은 高度成長이 持續된다 할지라도 賃金의 上昇은 별로 期待할 수가 없다. 따라서 巨視經濟政策 實施의 必要性이 認定된다. 巨視經濟政策의 목표는 두말할 必要없이 雇傭擴大에 두어야 하고 이를 爲해서는, 예를 들면, 雇傭效果가 큰 技術의 選擇, 中小企業의 育成, 農業의 育成等に 必要하다. 勞動力의 吸收가 빨라질 수록 競爭原理의 活成化도 빨라진다는 것은 自명한 일이다.

나. 市場機能의 活成化

여기에서 市場은 商品市場과 勞動市場 두가지로 나누어 論議할 必要가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韓國經濟는 大企業 中心으로 發展되어 왔으

며 이 결과로 大企業은 勞動市場에서 需要獨占者 役割을 해왔다. 이렇게 되면 雇傭增加와 賃金上昇에 對한 大企業의 寄與는 競爭企業(또는 中小企業)에 비해 더 많을 수가 없다. 따라서 韓國의 商品市場은 競爭體制로 서둘러 轉換되지 않으면 안된다.

勞動市場에서 市場機能을 活成化시키기 위해서는 微視經濟 政策의 實施가 必要하다. 이 境遇 微視經濟 政策은 職業訓練의 強化와 勞動市場 정보의 活成化이다. 職業訓練은 勤勞者의 質을 向上시켜 勤勞者로 하여금 賃金決定에서 유리한 立場에서 설 수 있게 해준다. 勞動市場 情報의 活成化 역시 求職이나 求職人問題를 해소하고 勤勞者로 하여금 마땅히 받아야 할 賃金を 받을 수 있게 해주면서 市場機能 또한 活成化시킬 수 있다.

다. 賃金引上規制 緩和

政府가 賃金引上指標의 別表를 통해 賃金決定에 直接 개입하면 人的資源配分の 效率性を 저해시킬 可能性이 있다. 뿐만 아니라 80年 以後의 賃金引上 規制政策은 부단히 企業家만 유리하게 해주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같은 賃金規制政策은 緩和되어야 할 것이다.

라. 賃金交渉에서 勞組의 힘 認定

韓國과 같이 그동안 勞組의 힘이 認定되지 않고 게다가 勞動의 供給이 초과상태를 維持하고 있을 境遇에는 勤勞者의 位置는 결코 競爭的이 될 수 없다. 이런 境遇에는 大企業家는 自己가 주고 싶은 賃金보다 더 주지 않아도 무방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고 勤勞者로 하여금 競爭的인 位置에 설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적어도 賃金決定에 있어서 勞組의 힘을 認定하는 것 뿐이다.

2. 企業側面

政府의 巨視的, 微視的 勞動市場政策이 競爭原理를 活成化시킬 수만 있다면 賃金決定에 있어서 企業家は 다음과 같은 方法을 모색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가. 自律的인 賃金決定

賃金이 企業家和 勤勞者 간에 妥協에 依해서 自律的으로 決定될 수만 있다면 勞使紛糾과 같은 심각한 問題는 發生하지 않을 것이다. 自律的인 賃金決定을 위해서는 企業家が 財務構造로, 企業의 收益性, 勞動生産性 增加, 投資計劃, 다른 企業家和 比較될 수 있는 勤勞條件이나 賃金水準 등을 勤勞者들에게 公開할 必要가 있다.

나. 賃金交渉에서 勞組의 힘 認定

賃金交渉은 勞組代表와의 協商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勞組의 結成이나 힘을 認定해야 하는 것은 必須的이다.

다. 傳統的인 賃金慣行의 自發的 撤廢

企業家は 賃金管理에 있어서 傳統的인 賃金慣行을 撤廢하고 成果主義 制度를 導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勤勞者의 生産性은 向上되고 競爭原理는 活成化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朴東雲, 韓國經濟의 勞動所得分配率의 變化, 「經濟學研究」第29輯(韓國經濟學會, 1981.12).
2. _____, 一般均衡理論과 스태그플레이션, 「芝圃 閔俊植 博士 華甲記念論文集, 1985, PP. 463 - 469.
3. _____, 韓國의 所得政策과 所得再分配效果, 「產業研究」第八輯(檀國大, 產業研究所, 1984), PP. 13 - 27.
4. _____, 低賃金解消와 雇傭擴大政策—最低賃金制 代象으로서의 賃金補助政策, 「產業研究」第九輯(檀國大, 產業研究所), PP. 1-18.
5. _____, 李重熙, 「最低賃金制」(우아당, 1985).
6. 朴世逸, 雇傭, 賃金 및 勞使關係, 「韓國經濟의 理解」(比峰出版社, 1987) PP. 171 - 250.
7. 朴 昇 외 3人, 「所得分配政策, 어떻게 할 것인가?」(社會發展研究所 刊展望, 1987.2).
8. Ehrenberg, R. G. and Smih, R. S., Modern Labor Economics ;Theory and Policy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2)
9. Hamermesh, D. and Rees, A., The Economics of Work and Pay 3rd ed.(Itarper & Row, Publishers, 1984).

民主化時代の 經濟運用

財政政策 地方自治

9↑ 財政

- 財源
- 内債
- 外債
- 公債

1. 經濟民主化

政治가 오랫동안 民主化 기미를 보이지아 이에 뒤질세라 經濟, 社會, 文化 등 다른 分野에서도 民主化 기치를 드높여 가고 있다. 한 野黨 指導者까지도 「韓國은 지금 必야흐로 民主化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했던가. 하물며 일반 國民들의 期待는 오죽하라.

民主化時代를 맞아 經濟民主化도 이제 本格的으로 論議되고 있다. 經濟民主化란 말은 별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最近의 韓國的 狀況에서는 重要的 意味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言論의 論調나 經濟團體의 油印物 등이 이를 잘 立證해주고 있다. 經濟民主化란, 한 마디로 政府의 規制와 干涉으로 부터 벗어나 經濟가 自律的으로 運用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 最近에 들어와 크게 各광을 받기 시작한 理由는, 길게 說明할 必要없이 韓國政府가 官主導型 成長政策을 推進해오면서 그동안 經濟運用을 지나치게 規制하고 干涉해왔기 때문이다.

最近의 흐름을 볼 때, 經濟運用에 대한 政府의 規制와 干涉의 代表的인 例는 韓銀의 獨立性 主張과 勞使紛糾의 擴散이 아닌가 생각된다. 「韓銀의 獨立性과 中立性 保障이 經濟民主化의 捷徑」이라는 韓銀 職員들에 의한 主張은 政府規制가 어디에서부터 풀려야 할 것인가를, 그리고 勞使紛糾의 擴散과 심각성은 政府干涉이 얼마나 危險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 점만으로도 經濟民主化의 重要性은 充分히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2. 政府 膨脹

그렇다면 經濟民主化 時代に 經濟運用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質問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質問에 대한 答은 간단할 수도 있다. 즉 政府는 規制와 干涉으로부터 초연한 立場이 되어 經濟運用을 다른 經濟主體들 — 이르면 企業家, 勤勞者, 消費者, 農民 등 — 의 合理的 意思決定에 맡겨 두면 되기 때문이다(이 경우에 政府가 소위 市場失敗를 傍觀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可能的 일일까.

民主化의 흐름을 타고 政治家들은 드디어 계절이나 만난 듯 술한 政策들을 다투어 提示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政策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共通的인 特徵은 政治家들이 國民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포부와 關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獨寡占의 深化로 인한 經濟力 集中의 分散, 中小企業의 活性化, 農民의 保護, 勤勞者의 保護, 公正한 分配를 위한 配分的 正義의 確立, 支自制 實施등이 그 代表的인 例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政策의 實施 必要性은 쉽게 認定되지만 이들 政策은 한결 같이 「더 많은 돈과 더 강한 規制와 干涉」을 必要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現代 資本主의 國家가 當面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問題 중의 하나는 政府膨脹으로 인한 政府失敗라고 指摘되고 있다. 1976年度 노벨 經濟學 賞 受賞者인 「밀튼 프리드만」은 美國政府의 膨脹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온 선을 계속 따라 갈 수는 없다. 1928년에 美國政府 — 聯邦, 州, 地方 — 는 國民所得의 10%에도 못미치는 돈을 支出했다.…… 그러나 오늘날 政府支出은 國民所得의 40%에

이르고 있다. 不過 50餘年 동안에 政府支出은 10%에서 40%로 增加한 것이다.

「프리드먼」의 이같은 指摘은 韓國의 경우에도 그대로 適用될 수 있다. 公共部門을 包含해서 韓國의 政府支出은 美國 水準과 비슷한 35%정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府膨脹은 「더 많은 돈과 더 강한 規制와 干涉」이 뒷받침되어야만 可能한 것이므로 民主化時代에 우리는 먼저 政府膨脹을 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3. 政府膨脹으로 인한 經濟問題

政府가 國民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할 때 그 意思決定은 크게 나누어 慣習에 의해서, 獨裁者에 의해서 그리고 民主的 投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民主主義 政治體制에서는 政府의 役割이 核心的이다. 그 理由는 官僚들은 豫算을 통해서 公共財 選擇의 必要性和 그 適正量을 決定하고 이 豫算案은 議會로 보내져 政治家들에 의해서 投票를 통해 最終적으로 決定되기 때문이다. 이 過程에서 提起되는 問題는 과연 公共選擇에 대한 國民들의 選好가 올바르게 나타나서 公共財의 量이 適正 水準에서 供給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만일 官僚들이 進지전능하고 政治家들 역시 合理的이라면 그들은 國民들의 選好를 正確하게 把握하여 國民全體의 厚生을 向上시킬 수 있는 適正量의 公共財를 供給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可能性은 現實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그 理由는 官僚와 政治家들의 實體에서 찾아볼 수 있다. 公共選擇理論에 따르면 官僚란 昇進이나 權力 維持를 위해서 자신의 利益을 極大化하려는 集團이고 政治家는 當選이나 再選을 위해서 역시 자신의 利益을 極大化하려는 集團이라고 規定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官僚와 政治家들은 자신들의 利益을 위해서 될 수 있는대로 豫算을 極大화시킬 수 있는 公共財를 選擇하고자 할 것이다. 政府膨脹은 바로 이러한 論理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좀 더 具體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930年代를 거치는 동안 資本主義 經濟體制는 市場機能에 의한 經濟運用이 經濟를 不安定한 狀態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을 經驗하게 되었다. 이 結果 經濟의 安定化를 위해서는 政府의 役割이 強調되어야 한다는 「케인즈」理論이 登場하게 되었다. 「케인즈」는 不況克服을 위해서 赤字財政

政策의 必要性을 具體적으로 提案했다. 그런데 赤字財政政策은 엉뚱한 結果를 가져오게 되었다. 經濟學者들에 의해서 提案된 經濟政策은 소수의 현명한 政治 엘리트 그룹에 의해서 立案되리라고 케인즈는 前提했으나 經濟學者들의 提案은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려는 政治家들에 의해서 그냥 濫用되고 만 것이다. 이것은 現在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一般的인 現象이다.

그 理由는 매우 간단하게 說明될 수 있다. 政府가 國民들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할 때 이를 위한 가장 理想的인 方法은 政府支出이 租稅收入으로 充當되는 均衡豫算制度이다. 그러나 이 方法은 政治家 자신들에 의해서 拒否되지 않을 수 없다. 그 理由는 政治家 스스로가 구태여 落選의 危險을 무릅쓰고 租稅增加의 必要性을 내세울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治家들은 「더 많은 돈」의 確保를 위해서 租稅增加 아닌 다른 方法을 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赤字財政政策의 實施를 위한 赤字保填方法이다. 赤字保填方法으로는 內債, 外債, 通貨發行 등이 動員된다.

財政赤字 問題는 韓國의 경우에 매우 심각한 편이다. 이 問題는 現在 거의 모든 資本主義 國家에서 이미 一般化되어 있는 現象이기도 하다. 國內 負債이건 外債이건 政府 빚 問題 역시 韓國의 경우에 심각한 편이다. 現在 얼마나 많은 國家들이 外債負擔에 시달리고 있는가.

過多한 通貨增加로 인한 인플레이션 問題는 또 여러 國家에서 얼마나 심각한가. 美國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美國에서는 累積되는 財政赤字가 상당 部分 通貨增加로 保填되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이 結果로 國際競爭力이 弱化되어 貿易赤字마저 累積되어 오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이 바로 政府膨脹이 가져오는 經濟問題의 한 面이다.

4. 政府膨脹을 막는 길과 政治家의 覺醒

民主化時代의 經濟運用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이 質問에 대한 대답은 역시 간단할 수가 있다. 政府失敗를 막으려고 하는 政治家들의 覺醒과 努力이 前提만 된다면 經濟는 自律的으로 運用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民主化가 本格的인 段階에 이른 後에도 만일 政治家들이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계속 官僚와 야합하여 「더 많은 돈과 더 강한 規制와 干涉」을 強要한다면 바람직스러운 經濟運用은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韓國의 政治家들이 確實하게 알아 두어야 할 必要가 있다. 최근의 한 記事는 이에 관해서 한 좋은 例를 보여주고 있다.

- 이번 追更豫算(5千億원)은 이 機會에 하나라도 더 地域區 事業을 解決해보려는 선량들과, 쓰고 남은 豫算은 부담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經濟長官들 그리고 누가 政權을 잡을지 몰라 눈치를 보아야 하는 公務員들이 함께 만들어 낸 合作品이랄 수 있다. 이들에게 아까운 稅金을 맡겨둔 國民들이 水災民만큼이나 불쌍해 보인다.

(朝鮮日報 87.8.7 宋熙永 記者)

體制에 대한 自信感을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文熹甲 經濟企劃院 次官은 朝鮮日報 10月9日字 「나의 發言」을 通해 現行 初一中一高校 經濟教育의 全面改編의 必要性을 主張하면서 그 具體的인 方案을 提示한 바 있다.

文次官의 主張은 最近 勞使紛糾를 통해 表面化된 소위 「運動書籍」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企業主는 우리의 敵, 끝까지 鬪爭하여 搾取당한 賃 金을 되찾자」는 구호가 勤勞者 사이에 擴散 되는 趨勢로 보아 「지금까지 皮膜흘려 쌓아올린 基盤마저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것이 뻔하므로 最近 社 會 일각에서 體制 전복적 急進思想을 발붙일 수 있게 한 教育制度의 改 編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어 文次官은 經濟教育 全面改編을 위해 첫 째, 經濟科目을 社會教科書의 한 귀퉁이에 덧붙이지 말고 最少한 高等學校 課程부터 獨立科目으로 採擇하고 둘째, 資本主義와 自由經濟의 理念을 보다 쉽게 가르칠 수 있는 經濟教科書를 만들어야 하며 셋째, 經濟를 가르칠 수 있는 教師를 養成해야 한다는 方案을 提示했다.

文次官의 이같은 주장과 方案提示는 韓國經濟의 現住所를 考慮할 때 그 妥當性이 쉽게 認定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몇년전 一部大學에 改 設된 國民倫理學科와 1學年 國策教養科目으로 設講된 國民倫理科目이 보여 준 不作用을 생각할 때 文次官의 주장도 자칫 一方通行式이 되지 않을까 憂慮된다. 이에 經濟學教授로서 한가지 提言을 添加하고자 한다.

우선 講義와 關聯된 에피소드를 하나 들어보겠다. 지난 1學期末 試驗 問題中の 하나다. 「政府가 目標로 내세운 物價上昇率이 3%, 勞動生産性 增加率이 5%程度일 때 名目賃金 上昇率을 3%로 規制한 政府의 賃金引 上規制政策이 勤勞者의 賃金所得分配率이나 企業家의 賃金費用率에 미치는 效 果를 論하라.」 이 問題는 講義內容의 連關性을 考慮하여 2, 4學年 學生 들에게 다같이 出題되었다. 問題의 內容은 講義를 通해서 理論的, 實證的 으로 충분히 說明되었음은 勿論이다.

그런데 採點 結果 全體 1百 50 名의 學生 가운데 70%程度가 政府에 의한 賃金引上規制政策의 效果를 企業家の 「搾取」로 보았다. 한 마디로, 놀라운 일이었다. 企業家에 대한 젊은 世帶의 이같은 見解는 根本적으로 體制나 理念에 대한 見解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講義室에서의 많은 經驗은 젊은세대와 既成世帶間에 價値觀의 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일깨워 준다. 그 價値觀의 차이 가운데 가장 代表的인 例는 아무래도 체제나 理念에 대한 觀點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동안 大學生들(특히 低學年)과의 끊임없는 對話를 통해서 얻어진 結論의 하나는 그들이 初-中-高校에서 배운 反共教育이 일방통행식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경우가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點이다. 사실 戰爭과 배고픔을 經驗하지 못한 世帶에게 戰爭과 배고픔의 苦痛을 傳達한다는 것은 때로는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다.

따라서 共産主義에 대해서 現實感覺을 전혀 갖지 못한 世帶에게 既成世帶에 의해 敍여진 教科書를 통해 共産主義에 대한 批判意識을 심어 주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이런 點으로 보아, 지난날과 같은 「貧困」을 經驗하지 못한 채 지금은 「豊饒」속에 살면서 이웃들의 「貧困」을 목격하거나 때로는 經驗을 하고 있는 一部 젊은 世帶들이 現 體制나 理念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나머지 企業家를 「搾取集團」으로 보는 것은 理解할 만한 일이다. 勿論 젊은 世帶가 갖는 葛藤의 要因 가운데는 그동안 既成世帶가 외면해온 政治의 民主化問題도 包含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언젠가 鄭周永 現代會長과의 TV對談에서 朴昇教授는 「젊은세대는 自己들이 태어날 때 컬러TV가 이미 거기에 있었으므로 컬러TV는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젊은세대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既成世帶가 갖춰야 할 基本的인 姿勢의 方向

이라고 필자는 늘 생각하고 있다.

韓國은 지금 資本主義 國家는 勿論 共產主義 國家들조차 發展의 모델 케이스를 指摘하고 있는 國家이다. 또 祖國에 대한 既成世帶들의 자부심은 어떠한가. 이런 점을 勘案할 때 經濟教科書의 改編에 앞서서 政府는 體制나 理念論爭을 먼저 「자신있게」 開放할 必要가 있음을 提案한다.

最低賃金制の宿題

適用範圍 · 對象 限定

80年代 初盤부터 세 차례 밀려왔던 最低賃金制 論議는 「88年度 實施」發表로 드디어 일단락이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勞動部는 지난달 28日 低賃金 勤勞者들의 生計를 制度的으로 保障하기 爲해서 86년부터 87년까지는 低賃金 實態를 調査하고 이어서 「最低賃金法」을 制定한 後 88년부터는 最低賃金制를 本格的으로 實施할 計劃이라고 發表했다.

現在 政府가 構想하고 있는 試案에 따르면 最低賃金制의 適用範圍는 10人以上 製造業體의 18歲以上 正規 勤勞者이고 適用對象은 現行 行政指導額數인 10萬원을 基準으로 할때 適用範圍에 드는 勤勞者 10萬名程度(10人以上 事業體 勤勞者의 3%)가 된다. 이 試案대로 最低賃金制가 實施된다면 適用範圍와 適用對象은 지극히 限定되어 있는 셈이다.

이같은 計劃은 低賃金 勤勞者나 一部 社會集團에게는 일단 歡迎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韓國의 現實的인 與件에서 最低賃金制 實施는 一部 社會集團이 主張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이 問題는 이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事實上 80年代 初盤부터 最近의 實施計劃이 確定되기 까지는 그것을 贊成하는 側의 一方的인 主張만 있어왔지 反對하는 側의 主張은 별로 있어 본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最低賃金制 實施의 反對主張은 最近의 社會的 政治的 흐름에 對한 逆流로 指彈받을 만큼 反對意思 表明은 禁忌視 되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비록 政府가 實施計劃을 確定 發表했다 할지라도 最低賃金制 實施는 韓國의 現實的인 與件에서 肯定的인 效果보다는 오히려 否定的인 效果를 더 많이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政府 試案과 關聯된 問題點이 무엇인가를 指摘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否定的效果 많아

最低賃金制란 말은 유행가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아는 사람은 별로 많은것 같지않다. 이것은 講義室 經驗에서 얻어진 結論이다. 따라서 最低賃金制에 對한 說明은 되풀이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最低賃金制란 初步的인 經濟學 教科書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一般化된 概念으로 이를 理解하기 爲해서는 적어도 需要와 供給理論 程度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제 어떤 勞動市場이 需要와 供給이라는 經濟的 힘에 依해서 作用한다고 하자. 政府의 干涉이 없을때 이러한 勞動市場에서는 勞動에 對한 需要와 勞動의 供給이 一致하는 곳에서 均衡賃金과 均衡雇傭量이 決定된다.

여기에서 均衡賃金이란 勞動市場에 超過需要나 超過供給을 가져오지 않는 賃金水準만을 意味할뿐 賃金水準의 높고 낮음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概念이다.

그런데 政府는 왜 競爭原理에 依해서 決定되는 均衡賃金 대신에 最低賃金制를 導入하여 賃金の 決定에 干涉하려 드는 것일까? 그 理由는 어떤 勞動市場에서는 需要와 供給間의 競爭原理에 依해서 決定되는 均衡賃金이 最低生計費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은 水準이어서 政府가 이같은 勞動市場의 勤勞者들을 制度的으로 保護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勞動市場에서 決定되는 均衡賃金は 왜 最低生計費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가? 그것은 흔히 指摘되고 있는 것처럼, 企業家가 支拂能力이 있는데도 낮은 賃金を 支拂하기 때문인가? 물론 그런 境遇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均衡賃金이 最低生計費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게 決定되는 理由는 最低賃金制 論議에 있어서 核心的인 部分을 차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다 具體的으로 理解해야 할 必要가 있다.

優先 勞動에 對한 需要는 利潤을 極大化하려는 企業家에 依해서 決定된다. 企業家의 立場에서 볼때 技能이나 技術이 낮은 單純勞務職 勤勞者는 勞動의 價値가 낮게 評價된다. 例를 들면, 컴퓨터 技術者의 賃금이 높고 九老工團 勤勞者의 賃금이 낮은 理由는 바로 이 점때문이다. 이 論理는 또 雇傭의 決定權은 전적으로 企業家가 갖고 있다는 것을 示唆해 준다.

現在 勞動의 供給은 餘暇와 勤勞所得間의 選擇으로부터 效用을 極大化하려는 勤勞者에 依해서 決定된다. 勤勞者의 立場에서 볼때 실사 賃금이 오른다 할지라도 技能이나 技術이 높은 勤勞者의 數는 比較的 限定이 되어있기 때문에 勞動의 供給은 별로 增加하지 않을 것이나 單純勞務職 勤勞者의 數는 比較的 남아도는 편이기 때문에 勞動의 供給은 많이 增加할 것이다.

贊反見解 엇갈려

따라서 勞働에 대한 需要와 勞働의 供給이 갖는 각각의 特性때문에 競爭原理에 의해서 결정되는 均衡賃金은 컴퓨터 技術者의 경우에는 높고 단순노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낮을 수밖에 없다.

韓國의 勞働市場에서 지배적인 이같은 競爭的 賃金決定原理은 그 自體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競爭原理에 의해서 결정되는 賃금이 最低生計費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問題가 제기될 뿐이다. 이경우에 고통받는 國民을 위해서라면 「자비로운 군주」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고자 하는 政府가 이를 방관할리가 없다. 이렇게해서 등장한것이 바로 最低賃金制이다. 最低賃金制란 特殊한 機能이나 技術이 없는 미숙련 勤勞者 勞働市場에서 競爭原理에 의해서 결정되는 均衡賃금이 酷使와 關聯된거나 最低生計費에도 미치지 못할 때 政府가 勞働市場에 개입하여 未熟練 勤勞者의 賃金を 均衡賃金보다 더높게 책정해주는 制度라고 말할 수 있다.

最低賃金制 實施의 必要性에 관해서는 現在 찬·반의 相半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一般的으로 찬성의 見解는 社會倫理學的인 側面에서, 반대의 見解는 經濟學的인 側面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相反되기는 할지라도 이들 두 見解는 근본적으로 所得分配의 均等化를 위한 서로다른 接近方法임을 반드시 理解해야할 必要가 있다.

올바른 이해 부족

所得分配의 均等化政策에는 크게 보아 「結果의 均等」原理와 「機會의 均等」原理가 適用된다. 最低賃金制實施를 찬성하는 社會倫理學的인 立場은 「結果의 均等」原理에, 이를 반대하는 經濟學的인 立場은 「機會의 均等」原理에 더 가깝게 關聯된다고 말할수 있다.

우선 社會倫理學的인 立場에서 볼때 勞動의 댓가로 支拂받는 賃금이 最低生計費에도 미치지 못할때 정부는 低賃金勤勞者의 福祉를 방관해서는 안 될것이다.

資本主義經濟體制에서 先天的인건 後天的인건간에 能力이 있는 사람은 잘 살고 能力이 없는 사람은 못산다는 점을 감안할때 低賃金 勤勞者를 위한 政府의 制度的保護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資本主義國家에서 最低賃金制가 政治的으로 強力한 지지를 받으면서 採擇되어온 이유는 바로 이점때문이다. 따라서 結果의 均等原理를 바탕으로 低賃金を 해소할 수 있는 方法의 하나는 最低賃金制를 適用, 企業家의 몫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低賃金 勤勞者에게 나누어주는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經濟學的인 立場에서 볼때 低賃金解消를 위한 最低賃金制實施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最低賃金制 實施로 賃금이 上昇하게 되면 企業家는 이를 賃金費用의 上昇으로 보아 雇傭을 減少시키거나 또는 未熟練 勤勞者의 勞動의 價値가 最低賃金額보다 낮다고 생각될 때는 기계로 대체하기 위해서 雇傭을 減少시킬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最低賃金制가 實施되면 일자리를 잃지 않은 勤勞者는 賃금이 上昇하게 되나 일자리를 잃은 勤勞者는 賃金を 전혀 얻을 수 없게 된다고 經濟學者들은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정치가들은 이점을 전혀 理解하지 못하기 때문에 最低賃金

制 實施는 低賃金 勤勞者의 福祉向上에 確實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雇傭減少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最低賃金制 實施는 低賃金 解消에 確實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어떻든 最低賃金制의 效果에 관한 經濟學者들의 公同적인 見解는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最低賃金制 實施로 첫째 어떤 경우에 雇傭의 減少— 특히 未熟練 勤勞者의 雇傭의 減少—가 나타나고, 둘째 일자리를 잃지 않은 勤勞者의 福祉向上은 일자리를 잃은 勤勞者의 福祉犧牲의 댓가로 이루어지고, 셋째 社內訓練이나 職業訓練등 소위 인적자본에 대한 企業家의 投資意慾이 萎縮되어 未熟練 勤勞者의 將來所得의 增加가 沮害된다는 점이다. 이점은 이미 많은 經濟學者들에 의해서 실증분석을 통해 그 妥當性이 인정되었고 대부분의 經濟學者들에게는 常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經濟學者들은 先進國에서조차 低賃金解消을 위한 最低賃金制 實施를 반대하고 있다.

低賃金の 存続理由

그렇다면 韓國的인 與件은 어떠한가? 여기에서는 論議를 韓國에서 低賃金이 存續하게 된 理由에 限定하기로 한다.

低賃金이 存續하게 된 理由에 對해서 어떤 사람들은 韓國政府가 그동안 先分配後成長 政策보다는 先成長後分配 政策에 力點을 두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물론 틀린 指摘은 아니다.

韓國政府는 그동안 이렇다할 賃金政策이나 分配政策을 별로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賃金政策을 例로 든다면 政府는 20餘年동안 物價上昇率이나 好況 또는 不況에 맞춰 公務員의 俸給을 그때그때 上向調整해 왔고 民間企業은 競爭原理에 따라 賃金を 決定해 왔을뿐 다른 나라에서처럼 勞組의 파워가 認定되거나 最低賃金制가 實施되어본 적도 없다. 賃金政策이라고 한다면 最近 몇年동안 物價安定을 目標로 推進해온 賃金規制政策을 손꼽을 수 있을 程度이다. 그렇다고 勞動市場의 活性化政策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最近의 經濟學的 研究 結果에 依하면 成長爲主의 經濟政策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主張이 支配的이다. 例를 들면, 첫째 所得分配은 成長의 初期에는 惡化되다가 成長이 成功的인 關係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向上된다는 所謂 「쿠즈네츠 가설」의 妥當성이 認定되어 가고 있으며, 둘째 經濟發展 過程에서 分配에 力點을 두어온 南美제국은 오늘날 成長과 分配面에서 크게 落後되어 있으나 韓國과 같이 成長에 力點을 두어온 臺灣은 所得分配가 세계에서 가장 均等한 나라로 評價되고 있는 것이다.

雇傭構造 매우脆弱

따라서 低賃金の 存續理由를 賃金政策이나 分配政策의 不在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偏見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韓國에서 低賃金이 存續하게 된 根本的인 理由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理由를 다음의 두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韓國의 雇傭構造가 脆弱하기 때문이다. 雇傭構造의 脆弱性은 産業別 職業別 從事上의 地位別 性別 雇傭構造等を 통해 살펴볼 수 있다.

産業別 雇傭構造를 보면 韓國의 農業 雇傭構成比는 約 30%로 臺灣의 25%, 日本의 1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있다. 農業의 높은 雇傭構成比는 非賃金所得者의 比重은 높고 賃金所得者의 比重은 낮다는 것을 意味한다.

한편 職業別 雇傭構成比를 보면 一般的으로 技能이나 技術이 낮은 農林業 關聯職과 單純勞務關聯職의 雇傭은 全體 雇傭의 約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低賃金勤勞者數가 많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처럼 非賃金勤勞者와 低賃金勤勞者의 數가 많은 與件에서는 設사 雇傭이 增加한다 할지라도 低賃金勤勞者의 賃金上昇은 별로 期待할 수가 없기 때문에 雇傭構造가 脆弱하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低賃金勤勞者의 勞動市場에서는 勞動力이 超過供給 狀態이기 때문이다.

이점은 雇傭構造의 脆弱성과 直結되어 있다.

따라서 成長과 好況의 結果로 企業家가 勞動에 對한 需要를 增加시켜갈때 熟鍊勤勞者의 賃金은 빠르게 上昇하나 未熟鍊 低賃金 勤勞者의 賃金은 緩晚하게 上昇할 것이다. 이 結果로 20餘年間の 高度成長을 통해 雇傭 增加率은 世界에서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가 되었으나 韓國은 深化되

는賃金隔差와 持續的인 低賃金 問題를 經驗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政府의 干涉없이 低賃金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方法은 무엇인가? 이에 對한 解答은 臺灣의 經驗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臺灣의 經濟發展을 注意깊게 살펴보면 50~60年代의 經濟構造는 農業이 갖는 利點을 除外하고는 韓國의 60~70年代와 거의 비슷하다. 50~60年代를 通해서 臺灣은 實業과 低賃金 問題로부터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輸出主導型 工業化政策은 臺灣을 60年代에서 世界에서 가장 높은 高度成長을 이룩한 國家로 만들었고 雇傭構造를 高度化시켜 賃金所得者의 比重을 높이는데 決定的인 寄與를 하게 되었다. 이 結果로 臺灣은 이미 著名한 經濟學者들에 依해서 立證되고 있듯이 勞動力의 吸收를 成功的으로 끝낼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特別히 強調해야 할 것은 이렇다할 賃金政策이 없었던 臺灣에서 勞動力의 吸收는 低賃金 地帶에서 먼저 成功的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低賃金의 上昇은 高賃金보다 훨씬 빨랐고 이로 因해 所得分配는 政策의 干涉없이도 均等化될 수 있었다.

臺灣의 教訓은 政府가 最低賃金制를 實施하여 實業을 增加(또는 雇傭을 減少)시키는 것보다는 當분간 低賃金이 存續한다 할지라도 雇傭擴大政策을 펴 低賃金 地帶의 勞動力 吸收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示唆해 준다.

試案에 대한 批判

그러나 本格的인 最低賃金制 實施 計劃은 이미 確定 發表되었다. 이 政策이 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政府는 두가지 側面—低賃金の 解消와 雇傭減少의 最少化—에서 細心한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言及한 대로 政府의 試案에 따르면 最低賃金制 適用範圍는 10人以上 製造業體의 18歲以上 正規 勤勞者의 現行 行政 指導額數로 따지면 適用對象者는 約 10萬名 程度가 되는데 長點은 最低賃金制의 適用範圍를 限定함으로써 그 實施에서 오는 否定的인 效果를 미리 가늠해볼수 있으며 現實적으로 雇傭의 減少를 最少化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發表된 試案에 따르면 適用對象이 지극히 限定되어 있어서 最低賃金制 實施는 低賃金 解消에 그다지 큰기여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低賃金 勤勞者中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게 될것은 自明한 일이다.

뿐만아니라, 最低賃金制 實施의 波及效果는 製造業以外的 다른 產業에도 影響을 미쳐 企業家는 低賃金 勤勞者의 雇傭을 忌避하게될 可能性도 없지않다.

最低賃金制는 그 實施에 앞서 經濟全般에 걸친 低賃金實態, 企業의 支拂 能力, 低賃金 勤勞者가 家計를 꾸려나가야 할 1次的 勤勞者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될 2次的 勤勞者인가에 관한 性格把握, 最低賃金額 設定에 必要한 最低生計費 推定等 여러가지 基礎資料의 準備가 必需的이다.

이러한 準備가 完了된다 할지라도 最低賃金制는 政治的要因보다는 經濟的 與件을 勘案해서 實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筆者가 考慮하고 있는 韓國의 「現實的 與件」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最低賃金制 實施는 雇傭의 減少를 分明히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비록 低賃金 自體는 當分間 問題가 된다 할지라도 最低賃金制 實施

로 인해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는 생존권을 剝奪당하게 되는 셈이다. 韓國과 같이 雇傭構造가 脆弱한 狀態에서는 이점은 特別히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둘째 最低賃金制 實施로 雇傭이 減少하게 된다는 점을 認定한다면 일 자리를 잃은 사람은 適用되지 않는 產業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할 것이므로 다른 產業의 低賃金은 더욱 惡化될 可能性이 있다. 이점은 最低賃金制 實施가 制限的일때 야기될 수 있는 매우 重要한 問題로 指摘되고 있다.

定規勤勞者가 對象

세제 18歲以上の 定規勤勞者라 할지라도 과연 低賃金 勤勞者가 1次的 勤勞者인가 아니면 2次的 勤勞者인가 하는 問題는 重要的 時事點을 지니고 있다. 만일 低賃金 勤勞者의 大部分이 家計를 꾸려 나가지 않아도 될 2次的 勤勞者라고 한다면 (現在 10萬원 以下 低賃金 勤勞者의 約 70퍼센트가 2次的 勤勞者로 나타나 있음), 最低賃金制 實施는 오히려 그들로 부터 적은 賃金으로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기회를 剝奪해 버리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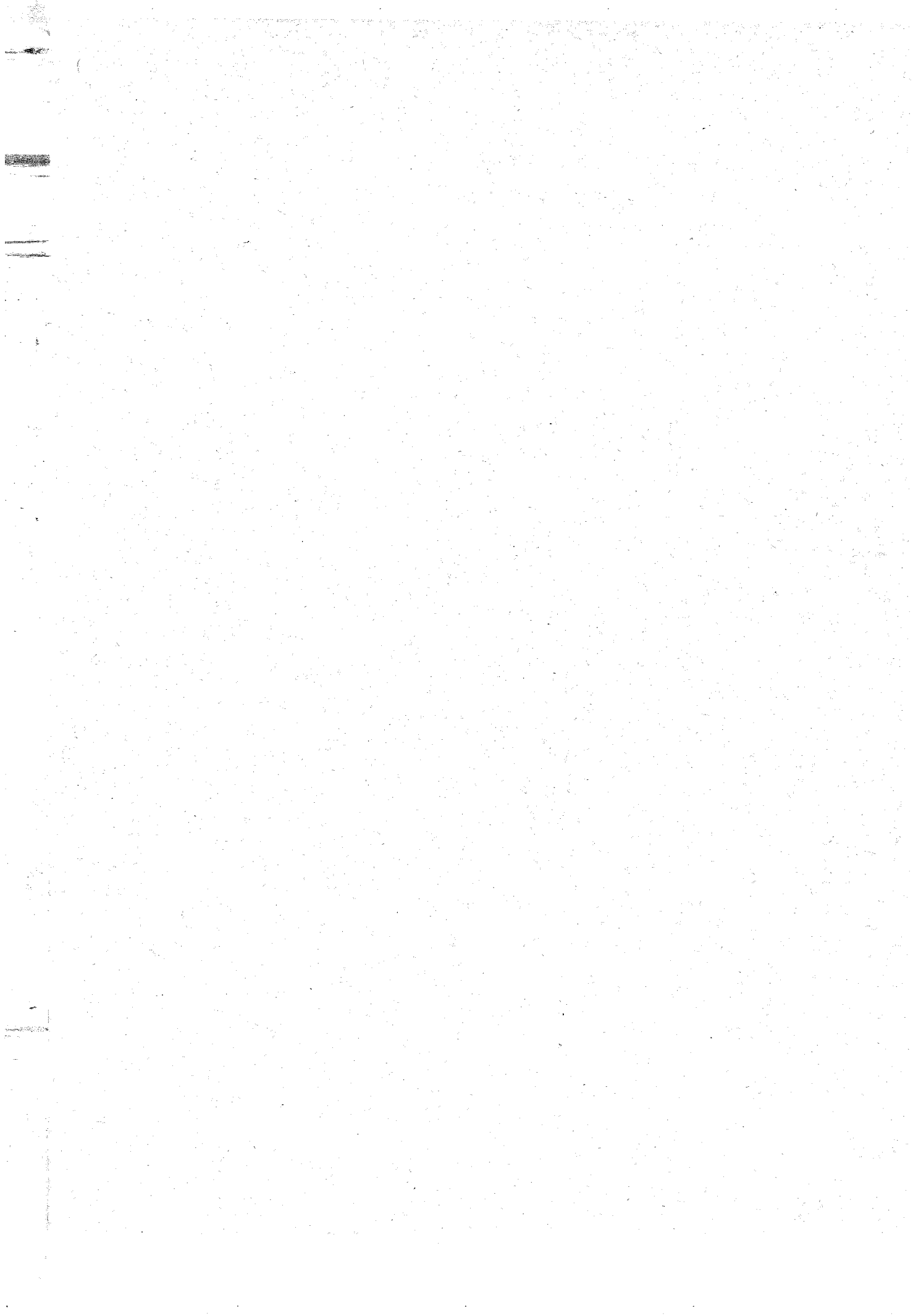
네째 筆者가 現段階에서의 最低賃金制 實施를 反對하는 가장 重要的 理由는—이것만으로도 그 理由가 充分하다고 생각하지만—韓國의 低賃金 勤勞者의 勞動市場은 「超過供給」狀態일 뿐만 아니라 現在 「失業의 增加」가 韓國經濟를 강타하고 있다는점 때문이다.

韓國도 언젠가 勞動力의 흡수를 成功的으로 끝낼 수 있게 될때 低賃金 問題는 전혀 擧論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政府의 發表에 따르면 失業者數는 60萬名에 이른다고 하는데 韓國經濟가 안고있는 不完全就業狀態를 勘案하면 失業者數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점들을 勘案할 때 最低賃金制를 實施하여 低賃金 勤勞者의 勞動市場에서 失業者 數를 增加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低賃金 勤勞者를 위한 雇傭擴大政策을 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筆者가 提案하고 싶은 것은 構造的失業을 줄이기 위한 職業訓練과 摩擦的失業을 줄이기 위한 就業情報 센터의 運營을 低賃金 勤勞者에게도 擴大 適用시켜 勞動市場을 活性化시키는 한편 當分間 企業家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雇傭을 擴大시킬수있는 賃金補助政策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단국대.

朴東奭